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를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일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30호

Wednesday, May 29, 2024 A

“정치적 마녀사냥... 트럼프는 무죄”

〈변호인측 최후 변론〉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로 출마가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학음 돈’ 형사재판이 28일 양측 최후변론을 끝으로 배심원 평결만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오늘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며 슬픈 날”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혐의가 “정치적 마녀사냥일 뿐”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토드 블란치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 측의 기소가 전과자이자 거짓말쟁이인 마이클 코언의 증언에만 기대어 이뤄졌다”는 점을 배심원단에 상기시키며 “코언에 대한 추가 증거가 필요하며, 그때까지 배심원 평결은 미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화당 측은 “이번 사건은 성추문이 아니라 회계장부 기입의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사건일 뿐이다”라며 “이것이 과연 전직 대통령이냐 현재 야당 대통령 후보를 감옥에 보내야 하는 형사 기소의 혐의로 적당한 것인가”라고 뉴욕 사법당국을 강하게 성토했고



입막음 형사재판 최후변론 종료, 배심원단 평결만 남아 무죄판결시 “대선 날개” 유죄판결 때는 “지지자 결집효과”

있다.

이런 가운데 결과와 상관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을 통해 “얻는 것이 잃을 것 보다 많을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 자체를 ‘정적 죽이기’, ‘마녀사냥’ 등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기소 때처럼 더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

감옥에 갈 가능성도 사실상 ‘0(제로)’다.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흉악범이 아닌 까닭에

불구속으로 항소심이 진행된다. 11월 대선 전에 항소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대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ABC 방송이 지난 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 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학음 돈’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16%는 ‘지지 여부를 재고하겠다’고 답했으나, 지지자의 결집효과로 실제 득표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일부의 전망이다. 박세용 기자

김정은 ‘위성’ 시진핑에 불만 쫓다

한일중 정상회의의 공동선언 시비 북 “정치적 도발” 중국까지 비판 전문가 “북중관계 경색 가능성”



군당국이 지난 27일 밤 경비함정 감시장비로 촬영한 북한 정찰위성의 폭발 장면. (사진 합성)

실패로 돌아간 북한의 지난 27일 위성발사 ‘태알’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불만이 묻어 있다. 이날 이뤄진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이 ‘협력의 제도화’에 한목소리를 내며 북핵 문제를 의제로 다룬 건 북한의 ‘뒷배’를 자처해 온 중국이 한-일과 부쩍 가까워지는 데 대한 김정은의 초조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날 정상회의의 결과 채택한 3국 공동선언에 대한 북한의 날 선 반응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이를 “자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반발했다. 중국이 정상급에서 채택한 문안을 북한이 정면

으로 반박하는 건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중 직후 “구걸 외교”라고 비판하며 한국을 저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의 마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 감행됐다”며 사실상 이에 참여한 중국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박현주-이근평-정영교 기자

▶ 14면 ‘정찰위성’으로 이어집니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무산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협치 실종 거부권 댄 법안폐기 ‘실익없는 정쟁’

여야의 표 단속이 치열했던 해병대 소속 고(故)채수근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은 결국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 법안 재의결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가결 기준(찬성 196표)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예고대로 찬성했다면, 법안권에서 반대·무효·기권으로 최소 6명이 빠져나간 셈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로 마무리됐다.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8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쟁점 법안 5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21대 국회 임기는 29일 끝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

월 24일(한-일 회담 반대 시위) 이후의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부상자, 그 가족과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교육·취업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논란이 일자 의료·양로·요양으로 지원 범위를 줄였지만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여권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부산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에 연루된 인사까지 유공자로 변신시키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 관계기사 2, 12면 손국희 기자



이스라엘 탱크, 라파 중심가 진입 이스라엘 방위군 탱크가 28일 가자지구 남쪽 이집트 국경도시 이자하마스의 최후 보루인 라파 중심가에 진입한 가운데 한 팔레스타인 가족이 당나귀 수레에 가재도구를 싣고 피란길에 오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기 물품지킴이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1석 5조 통합보험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Life Insurance
생명보험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장기 간호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야당, 22대서 채상병특검 재추진

김여사 의혹까지 특검정국 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되자 당장 22대 국회 재추진을 예고하며 대어(對與)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알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확보, 제2야당으로 거듭나는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의 '통과 법안 1호'로 만들자고 다른 야당에 제안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공보국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21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끝내 거부했다. 총선민의 수렴은 22대 국회의 몫으로 남았다"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내달 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반대로 특검법이 폐기된 것을 규탄하는 한편 특검법 재추진을 위한 여론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들이 곧장 특검법 재추진에 팔을 걷어붙인 데에는 여전히 찬성 여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로텐더홀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위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더욱 선명해진 여소야대 지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뒤 문을 여는 22대 국회는 범야권 의석수가 총 192석에 달하는 만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하더라도 21대 때보다 재의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라는 해석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전원 출석 시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재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각종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은 22대 국회 들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추가조사 의혹 특검법' 재추진은 물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특검법' 등도 발의할 방침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의 수사 대상

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고, 향후 민주당을 설득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을 도입해 국민의 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특검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해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리 우선순위 등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실질적인 동력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고 한다. 근육형성지표(CPK)도 2만U/L(정상 단위)을 훌쩍 넘었다. 황문근용해증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상은 200~300이다. 황문근용해증은 스피닝 같은 무리한 운동, 음주, 화상, 수술, 감염 등으로 근육세포가 괴사하는 병이다.

의명을 요구한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열사병이 진행되면 이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병이 황문근용해증"이라며 "사망 원인 질병은 열사병으로 추정되며 황문근용해증은 관련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의는 "열사병에 걸리면 체온을 떨어뜨리는 중추신경이 마비돼 체온이 내려가지 않는다"며 "초기에 옷을 벗겨 얼음

등으로 체온을 내리는 응급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응급의학 전문의는 "이런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다면 군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이나 민간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는데, 군 차량으로 이송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문근용해증 발병에 규정을 벗어난 군기훈련이 직접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회수와 시간, 승인권자의 승인 등 군기훈련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선 1회당 1km까지 보행(걷기)만 가능하고,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에서 해야 한다. A씨는 완전군

장을 한 채로 연병장 1.5km를 돌고 팔굽혀펴기까지 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6명의 군기훈련 대상 훈련병에게 완전군장 달리기를 시킨 뒤 1등만 빼고 또 돌리는 벌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선착순 뺑뺑이'를 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현장 기온은 27.4도였다.

한편 육군은 이날 군기훈련 지시의 책임이 있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 의견으로 강원경찰청에 이첩했다. 이들은 전날 오전 8시부터 직무 배제됐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장주영·이근평 기자

'오물짝 경고' 김정은, 냄새나는 분변 뿌렸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살포한 전단(빠라)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합참은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가 경기·강원 접적지역 일대에서 식별돼 군에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방 지역에서 풍선 10여 개가 식별됐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고도에서 날다가 일부는 떨어졌고 나머지는 계속 비행 중이다.

군은 야간 시간대를 고려해 격추는 하지 않고 지역별로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떨어진 일부 풍선에는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어두운 색깔과 냄새 등으로 미뤄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들어 매달려 있었다고 알려졌다.

합참은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김일성사적관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풍선이 식별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안내했다.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고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은 2016년에도 풍선에 오물을 실어 날려 보낸 적이 있다.

이재명 기자

"숨진 훈련병, 병원 왔을때 이미 여러 장기 손상"

"2시간 만에 후송, 체온 40도 육박 열사병 조동대응 못한게 사인 추정"

군기훈련(열차려) 중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이 속초의료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장기 여러 곳에 손상이 발생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의학 전문가들은 "열사병으로 쓰러진 훈련병에 대해 군에서 조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한다.

훈련병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40분에 강원도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졌다. 군의관을 수배하는 데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착한 군의관 지시로 신병교육대 의무대에서 수액을 맞았다고 한다. 이미 이 무렵에는 열사병으로 인해 A씨 체온이 급격히 올라 있던 시점이었다고 한다.

군 당국은 군의관이 함께 탑승한 군 차량으로 A씨를 강원도 속초시 속초의료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는 오후 6시45분쯤 도착했다고 한다. 이 병원 관계자는 "도착했을 때 엄청나게 고열에 시달리는 상태였다"며 "이미 상태가 상당히 나빠져 있었고, 여기저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가운데)이 28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 정례식장에 마련된 훈련병의 빈소를 조문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에 문제가 생긴 다발성 장기 손상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장 상태도 안 좋았고,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져 쇼크에 빠진 채 병원으로 왔다"며 "기초적인 검사를 했지만, 중증 상태라서 손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여기저기 큰 병원을 알아보다가 강릉아산병원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전원할 병원을 찾느라 시간이 지체됐다고 한다.

A씨는 다시 군 차량에 실려 오후 9시 40분에 강릉아산병원에 도착했다. 체온이 40도에 육박했고 의식불명 상태였다

위성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SUPER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Martindale-Hubbell
NOTABLE
Peer Rated for Strong Ethical Standards 2024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형 카우 연방상원 후보, 트럼프 지지 얻어

〈버지니아〉

베트남 난민 출신, 해군에서 25년 근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 선거 공화당 경선에 출마한 베트남계 형 카우(사진)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카우 후보는 나의 완전하고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그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투쟁하는 전사이며 우리의 수정헌법 제2조 총기소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전사”라고 추켜세웠다.

카우 후보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자 제27대 대통령인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이 매우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1975년 패망한 베트남을 탈출



해 시아프리카를 거쳐 미국 버지니아 난민으로 입국했다.

TJ과학교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폭발물 설치 및 심해 잠수 전문 해군 특수전 장교로 임관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전투지역에서 종군했으며 국방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FBI) 대테러 전담팀 등에서 25년간 근무했다.

특히 카우 후보는 해군사관학교에서 물리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대학과 MIT 펠로십을 거쳤다. 백인 아내 에이프릴 카우와 함께 버지니아 퍼셀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다섯 자

녀를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우 후보는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을 꺾어야 당선이 가능하다.

케인 연방상원의원은 민주당 경선에 단독 출마해 이미 당선을 확정지었다. 3선을 노리는 케인 의원은 애초 불출마설이 돌았으나 민주당이 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연방상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한편 카우 후보는 2022년 연방하원 버지니아 제10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 민주당의 제니퍼 웨스턴 의원에 패배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에서는 카우 후보 외에도 4명의 후보가 더 출마했다. 버지니아의 예비경선은 오는 6월18일 치러진다.

김욱재 기자



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릭 보거스 키 전 센터라 테크놀로지 수석부사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향한 헌사

워싱턴서 메모리얼데이 행사 참전용사 가족 등 보거스키씨 연설 손경준 지회장 “참전용사 매년 줄어”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Freedom is not free).”

메모리얼 데이인 27일 워싱턴 DC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추모식’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지정된 메모리얼 데이는 한국의 현충일 격으로,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추모하며 송고한 희생을 기리는 날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새겼다. 미 육군 야전 포병장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보좌관 등으로 24년간 복무한 뒤 2000년 전역한 릭 보거스키 전 센터라 테크놀로지 수석부사장은 한국전 참전용사를 돌이나 가족으로 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5분여 연설 도중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말을 네 차례 되풀이했다.

추모식엔 한국전 참전용사 손경준(92)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워싱턴지회장도 참석했다.

지난 30년간 추모식에 참석해 왔다는 손 회장은 “추모식에 오는 미군인 참전용사들이 해마다 줄더니 올해는 거의 안 보인다”며 “고령으

로 하나둘 돌아가시거나 병환으로 몸져누워 그런 거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전참전용사 기념재단 스티브 리 회장은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한쪽에 마련된 ‘추모의 벽’에서 헌화했다.

2022년 7월 건립된 추모의 벽에는 한국전에서 숨진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만380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리 회장은 “참전용사들이 눈을 감기 전에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비롯해 시내 곳곳에서는 성조기가 나부꼈다. 의회 의사당 인근에서 시작해 백악관 남쪽을 거쳐 내셔널몰까지 이어지는 퍼레이드도 진행돼 시민과 관광객의 눈길을 끌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에서 한국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 등에서 숨진 장병들을 기리며 “우리는 이 모든 전쟁을 우리와 타인의 자유를 위해 싸워 왔다”며 “모든 세대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전장에서 싸워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구인광고 “백인만 뽑습니다” 논란

VA 라우든 카운티 IT 기업 처벌

연방 법무부가 백인만 뽑는다는 구인광고를 게재한 업체에게 벌금 3만8500달러를 부과했으나 추가적으로 형사고발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연방 법무부는 버지니아 라우든 카운티 애쉬번에 위치한 IT 기업 ‘더그랜드 테크놀로지스 Inc’가 지난 2023년 5월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으로, 텍사스 달라스에서 반경 60마일 안쪽에 거주하는 직원을 뽑는다”는 구인광고를



게재했다. 연방 법무부 인권국 산하 이민고용권리과는 같은 달 조사를 개시하고 이 회사가 시민권 상태와 국적 등을 근거로 고용 차별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구인광고는 온라인 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연방정부 용역사업을 감시하는 연방용역준수프로그램국은 이 회사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비즈

니스 분석관을 채용하기 위해 구인광고 업체 ‘인디드’ 등에 광고를 게재한 사실도 확인했다.

크리스틴 크라크 연방법무부 인권담당 차관보는 “21세기에 이같은 일이 발생한 사실이 매우 부끄럽다”면서 “우리는 인종과 국적 등을 근거로 고용을 차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이 업체는 잘못을 인정하고 민사법적금 합의에 들어간 상태다. 또한 추후 인사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수행해야 하며 당국에 신고를 했던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김윤미 기자

재외교육발전·한국어 보급 포상 후보 접수

한국 정부가 재외교육발전 및 한국어 보급에 기여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포상 후보자를 접수한다.

한국 교육부는 ‘2024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을 위한 인사 추천을 12일까지 각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남가주 지역에서 재외교육발전 및 한국어 보급에 기여한 동포나

외국인 추천 후보는 LA총영사관에 접수하면 된다.

추천 대상은 ▶재외교육 전 분야에 헌신한 인사 ▶교육 분야에 재산·재능을 기부하거나 후원한 인사다. 교육부는 개인과 단체 총 40명에게 정부포상, 비공무원 160명(단체 포함)에게 장관 표창할 예정이다. 포상을 위한 해당 부

야 공적은 6월 기준 포상별로 2~15년 이상이다.

추천서는 별도 신청 양식을 작성해 공적 증빙자료와 함께 LA총영사관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LA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 모집공고로 안내하고 있다. ▶문의: hychoi21@mofa.go.kr

김형재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일은 선택 - 옴니화재

- 사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외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력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양용씨 사건 경관들 환자 개념조차 몰라”

한인 클리닉 초기 대처 오만 전문팀 아닌 무장경관들 출동 바디캠 본 한인 정신전문의들 “상황만 악화” “무지한 행동”



것은 클리닉의 신고 내용과 요청 사항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홀리 미셸 수퍼바이저는 양씨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LACDMH측에 모든 프로토콜이 준수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세한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LA경찰국(LAPD) 소속 무장 경관의 총격에 숨진 양용(40·사진)씨 사건과 관련,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신질환자 대처 시 경찰의 무력 사용 방지를 위해 구성된 비무장 전문 대응팀이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LA카운티정신건강국(이하 LACDMH) 클리닉의 911 신고 내용에서부터 비무장 대응팀 출동이 배제되는 상황을 촉발했다. 911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LACDMH 소속 모바일대응팀(PMRT)의 한인 클리닉은 다급한 목소리로 “매우 폭력적이며, 그가 나와 아버지를 공격하려 한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

LA카운티정신건강국(이하 LACDMH) 클리닉의 911 신고 내용에서부터 비무장 대응팀 출동이 배제되는 상황을 촉발했다. 911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LACDMH 소속 모바일대응팀(PMRT)의 한인 클리닉은 다급한 목소리로 “매우 폭력적이며, 그가 나와 아버지를 공격하려 한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관들의 비전문적 대응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 수잔 정 박사는 “바디캠 영상을 다 봤는데 경관들이 정신질환자 대응 훈련이 전혀 안 된 상태로 보였고 시간을 충분히 더 뺏아야 했다”며 “양극성 질환자를 계속 호출해서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하거나 ‘경찰이다’라며 문을 열어 자극한 행위는 상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911 교환원은 이 신고 내용을 근거로 곧바로 ‘코드 3’로 경찰을 호출했다. 코드 3은 경찰이 차량 사이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을 의미한다.

정신과 전문의 조만철 박사는 “양용씨 사건을 보면 경찰들이 ‘환자’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부모에게 ‘주거집입’으로 체포하는 방법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한다는 건 정신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경찰 역시 정신질환자 대응 시 정해진 방침조차 없이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LA지역 등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폭력적인 상황 및 환자가 있을 경우 파견되는 ‘SMART(Systemwide Mental Assessment Response Team·전조직 정신평가대응팀)’가 운영되고 있다. 정신질환자 대응 전문 교육을 받은 경관과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이다. 이들 대신 무장 경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장영 기자

순찰 강화 요청한 한인 집에 절도범

배스 시장과 면담한 단체장 한달 뒤 3인조 침입해 털려 대낮 청소부로 위장 문 노크



한인 단체장 A씨의 콘도에 지난 15일 3인조 절도범이 훔친 물건들을 가방과 비닐봉지에 담아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캐런 배스 LA 시장에게 한인타운 순찰 강화를 요구했던 한인 단체장의 집에 대낮에 폐도둑이 들어 현금 등을 훔쳐갔다.

배스 시장과 도미니크 최 경찰국장은 지난 4월 17일 LA한인회를 방문해 시민들의 우려를 듣고 경찰력 충원과 방법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회견 참석자중 A 단체장은 “사각적으로 경관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면 범죄자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배스 시장은 치안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회견 한 달만에 A씨의 집에 3인조 절도범이 들어 수천달러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 유유히 사라졌다.

A씨는 “5월 15일 오후 2시쯤 한인타운 그레머시 선상 콘도에 세 명의 절도범이 들어와 아수라장을 만들고 갔다”며 “콘도 로비에서부터 이들은 청소부인 것처럼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큰 가방과 비닐 봉투를 들고 들어와 집안에 있던 작은 장신구까지 모조리 쓸어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들이 집으로 진입하기 전까지 모습은 엘리베이터와 건물 내부 카메라

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A씨의 집에서는 카메라 전원을 모두 끄는 등 매우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범행이 벌어진 콘도 건물은 각종 소포를 건물 내 우편박스까지 들여놓도록 되어 있어 외부 인력이 따라 들어와도 주민들의 거부감이 없었던 것이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에 따르면 집에 사람이 없는지 미리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기 전에 인근 유닛에도 노크를 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이 비어있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범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자칫 강도 범행 또는 인명 피해 상황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씨는 최근 인근 콘도의 내부 공사로 인해 내부 사정이 외부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는 “시장에게 순찰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는데 마치 보란듯이 절도범들이 들이닥친 것 같아 망연자실했다”며 “그나마 사건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재산피해만 있어 천만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A씨는 피해 직후 사건 내용과 카메라 영상, 피해 상황을 올림픽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아직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 측은 대낮에 3인조로 움직이며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범인들의 대담함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주변 이웃들은 현관문 잠금 장치를 이중으로 하거나 최신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했고, 저녁에만 모니터를 지켜보는 경비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인성 기자

한인 군목 은퇴에 지역사회 아쉬움

22년 복무 사이먼 장 중령 세 아들 사관학교·장교 복무



장 목사는 유에스아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자라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기여에 항상 감사했다. 시민권 취득

미 육군 개리슨 피카티니 아스널에서 22년간 군목으로 근무했던 한인 사이먼 장(사진·60) 중령 목사의 은퇴 소식이 지역 커뮤니티가 아쉬워하고 있다고 인터넷 육군 소식지 ‘유에스아미(US Army)’가 22일 전했다.

소식지에 따르면 2번의 이라크 파병, 현역과 예비역을 모두 마친 장 목사는 오는 7월 은퇴한다.

장 목사는 유학생 출신이다. 생화학을 공부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스크랜턴 대학으로 유학을 왔다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다. 신학 공부를 마친 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목회해나갔던 그는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면서 달력 미군에 입대했다. 한국 남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한국의 3년 의무 복무도 마친 후였다.

절차를 마치고 미국의 시민이 되어 군에 입대하는 건 내게는 당연했다”고 설명했다.

미군에 입대했을 때 그의 나이는 38세. 자신보다 나이가 2배나 어린 동기들과 함께 훈련을 마치면서 군대 생활에 적응했지만, 이라크에 두 번이나 배치되면서 경험한 전쟁의 참혹함에 군대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전투현장 순찰을 앞둔 동기들이 군목을 만나 기도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이야기에 장 목사는 군목으로 새 삶을 시작했다.

장 목사는 “나는 내 동료 군인들이 자랑스럽다. 그들은 18세부터 20세 초반의

어린 나이였지만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매일 새로운 위험과 도전에서도 바그다드 거리를 순찰했다”며 “그들과 함께 복무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특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음으로 이 나라를 섬기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 나라와 미래 세대를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장 목사는 은퇴 후 일반 목회를 다시 할 계획이지만, 그의 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잇는다. 현재 큰아들은 해군 장교로 복무 중이며 둘째와 셋째 아들은 각각 육군과 해군 사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장 목사는 “아시아 청년들이 미국에서 자라면서 정체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공동체 밖으로 나가 더 큰 것을 경험하며 성장하길 바란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장영화 기자



타운 관할 시의원, 한인 뺑자 11월 결선을 앞두고 그레이스 유(왼쪽에서 세번째) LA시 10지구 시의원 후보가 한인타운서 23일 첫 기금모금 행사를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행사장에서 유 후보 지지한 인과 정치인, 단체장들이 승리를 기원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0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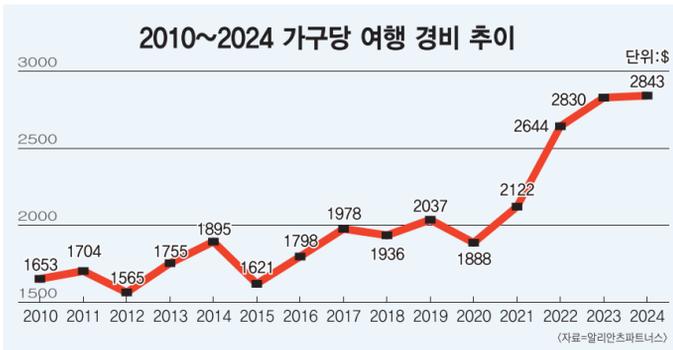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300m
M&T 대장금(미락조 문) 웨일라노레방 뉴타운

미락조 문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 지은 뉴타운을 맞은편 미국 성교회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여름여행 지출 2216억불 사상 최고

팬데믹 이전보다 118% 증가
가구당 경비 2843불, 40% ↑
여행객 49% 증가·인플레이 영향



올여름 여행 관련 지출 규모가 사상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전문회사 알리안츠파트너스가 최근 발표한 16회 미국 연례 휴가신뢰지수(VCI)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올여름 휴가에서 지출하게 될 여행 관련 총 경비가 2216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1017억 달러보다 118% 급증한 수치로 지난해 2140억 달러에 이어 2년 연속 2000억 달러를 상회한 것이다.

여행 경비는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593억 달러까지 급락했으나 회복 여행 수요 폭발에 따라 2021년 1537억 달러로 159%가 급증한 데 이어 2022년에는 1940억 달러로 2000억 달러에 육박한 바 있다.

결국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비해 4년간 여행 경비 지출 규모가 274% 폭증한 셈이다.

가구당 지출 여름 휴가 경비 역시 평균 2843달러를 기록해 2019년 2037달

리보다는 40%,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888달러보다는 51%가 늘어났다. <그래프 참조>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09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2019년(2122달러), 2022년(2644달러), 2023년(2830달러)에 이어 5번째로 2000달러를 상회했다.

여행을 계획한 소비자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1%에서 2024년 61%로 49% 늘어난 데다 인플레이션이 여행 경비 지출액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규정한 휴가란 집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진 장소로 최소 1주일 이상 떠나는 여행을 말하는 것으로 10년 전인 2014년 총 여행지출액 988

만 달러, 가구당 경비 1895달러에 비해서는 올해 각각 124%, 50% 증가했다.

알리안츠파트너스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담당 다니엘 듀라조 디렉터는 “올여름 휴가 여행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경비 급등이 소비자들의 휴가 계획에 차질 등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알리안츠파트너스가 전국여론조사업체 입소스 퍼블릭 어페어스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20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다. 박낙희 기자

문제 있는 아이폰7 최대 349불 합의금

6월 3일까지 신청해야



아이폰7(사진)과 아이폰7플러스를 사용하며 문제를 겪었다면 최대 349달러까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뉴욕타임즈가 2019년에 제기된 아이폰7과 아이폰7플러스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애플이 3500만 달러 지급에 합의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아이폰7과 아이폰7플러스에 오디오 IC칩과 관련한 문제가 2016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한 집단소송이 결국 합의로 이어진 것이다. 애플은 현재까지 오디오 IC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합의금 수령 대상은 2016년 9월 16일에서 2023년 1월 3일 사이에 아이폰7 혹은 아이폰7플러스를 보유하고 IC칩과 관련한 문제가 2016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한 집단소송이 결국 합의로 이어진 것이다. 애플은 현재까지 오디오 IC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나 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령 대상자는 6월 3일까지 웹사이트(smartphoneaudiosettlemnt.com)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합의금은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349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를 제기했던 고객과 진짜 수리를 받은 고객은 합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즉, 애플 측에 오디오 문제를 알렸지만 수리를 받지 않은 고객은 최대 125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합의금은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 심리가 예정된 7월 18일 청 절차가 자세하게 기재된 이메일이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조원희 기자

반려견 전용 항공사 나왔다

반려견들을 위한 전용 항공 서비스가 시작돼 화제다.

최초의 반려견 전용 항공사 바크(Bark)에어의 첫 취항 비행이 지난 23일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공항을 떠나 LA지역 맨누이스 공항에 도착한 것.

바크에어는 최대 15마리의 반려견과 견주들이 탑승할 수 있는 걸프스트림 G55 전용 제트기를 투입하고 있으며 충분한 공간 제공을 위해 항공권을 편당 10배로 제한하고 있다.

동반 승객은 최소 18세 이상만 탑승 가능하다.

반려견 1마리와 견주 좌석이 포함된 편도 티켓 가격은 국내선이 6000달러, 국제선은 8000달러며 동반인이 있을 경우 티켓을 2매 구매해야 한다.

기내 서비스로 음악부터 라벤더향 수건은 물론 물 또는 사골육수, 이차륙 기내 압력 변화 대비 귀 보호 기구 등이



반려견 전용 항공 서비스인 바크에어가 지난 23일 LA-뉴욕 노선에 취항했다.

[바크에어 제공]

제공된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취항 초기 소비자 반응은 뜨겁다. 특히 현재 운항 노선 외에도 신규 취항에 대한 요청도 1만 5000건이나 된다고 ABC방송이 전했다.

바크에어 웹사이트(air.bark.co) 예매 현황에 따르면 이날 취항편이 조기 매진된 데 이어 24일과 31일 LA발 뉴욕행도 완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낙희 기자

인플레이 때문에... 65% “재정 악화”

보육비, 월 생활비의 50~70%

지난해 가계의 경제적 웰빙 정도가 전년과 유사했지만 10명 중 7명 가까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성인들의 재정 상황을 조사한 ‘2023 미국 가계 경제적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가 인플레이션으로 생활이 악화하였고, 6명 중 1명은 각종 청구서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2%만이 재정적으로 괜찮다고 했는데 이는 2021년 최고치인 78%보다 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65%는 재정생활이 악화했다고 답했고 그중 19%는 훨씬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소득이 증가하면서 지출도 늘었다. 예산 부족으로 성인 절반 이상이 지출하고 나면 재정이 바닥났다.

특히 저소득층 성인 경우 식비가 부족하며 청구서도 완전히 부담할 수 없고 의료 서비스를 건너뛰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엔, 보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다. 보고서에서 보육비는 월 생활비의 50~70%나 차지했다.

주택 보험 관련 조사에서 자연재해로 재정적인 타격을 입을 위험이 높은 주택소유주일수록 보험 가입률은 낮았다. 남부에 거주하며 연간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주택소유주 중 거의 25%가 주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63%가 현금과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400달러의 긴급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13%는 어떻게 해도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고용·소득·은행 및 신용·주택·은퇴계획·학자금 대출·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경제 건전성을 조사하는 연준의 제11차 가계 경제 및 의사 결정 연례 조사에서 나왔다.

이은영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시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ve Central SC 100000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정복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703.639.0882



10% Flat Dividend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SMART.SOLOMONUS.COM

하원 이어 상원도 공화다수당 되나?

“공화당 내부서 낙관론 커져”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야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4년만에 연방 상원 다수당 탈환에 대한 낙관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 27일 보도했다.

더힐은 다가오는 상원 선거에서 ‘뒤집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자리로 메릴랜드, 웨스트버지니아, 몬태나, 오크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텍사스주 등 10곳을 지목했다.

‘뒤집기’란 재선을 노리는 현직 의원 또는 현직 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 후보를 상대 정당 후보가 꺾고 의석을 빼앗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더힐이 ‘뒤집기’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10곳 가운데, 민주당 의원 또는 민주당과 연대하고 있는 무소속 의원이 현역인 곳이 9곳, 공화당 의원이 현역인 곳이 1곳이다.

즉, 현재 민주당 51석(민주당과 연대하는 무소속 3명 포함), 공화당 49명의 살얼음 구도에서, 공화당이 빼앗을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의석이 9개나 된다는 예측이었다.

더힐은 부인이 한국계인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주 주지사가 공화당 주자로 출마표를 던진 메릴랜드주를 ‘뒤집기’ 후보지 중 하나로 꼽았다.

메릴랜드를 대표하는 상원의원 2명 중 한 명인 벤 카딘 의원(민주)이 내년 1월까지인 현재 임기를 마친 뒤 은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카딘 의원 후임 자리를 놓고 11월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의 새 인물이 경합하게 됐다.

호건 전 지사의 상대는 흑인 여성인



공화당 메릴랜드 상원의원 후보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연합뉴스]

안젤라 알소브룩스 메릴랜드주 프린스조지스 카운티 행정관(군수)이다.

대표적 대선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위스콘신주에서도 공화당 후보로 유력한 사업가 에릭 호브데가 민주당 현역인 테미 볼드윈 의원에 맞서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더힐은 예상했다.

민주당 소속인 현직 데비 스타베나우 의원이 현 임기를 마치고 은퇴하기로 하면서 새 인물 간의 대결이 된 또 다른 경합주 미시간에서도 공화당은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의원을 내세워 ‘뒤집기’를 노린다.

더힐이 ‘뒤집기’가 이뤄질 수 있는 곳으로 꼽은 10곳 중 공화당이 현역인 곳은 텍사스가 유일했다.

2년마다 435개 전 지역구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연방 하원과 달리 연방 상원은 6년 임기의 100석 가운데 2년마다 3분의 1씩 선거를 치른다. 전체 50개 주에서 각 주마다 2명의 상원의원이 배정돼 있다.

공화당은 2020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다수당 자리를 내줬다.

“안보 위협하는 중러거래, 차단한다”

동결 러 자산의 우크라이나 지원 활용에 대해선 “G7, 의견일치 아직 안돼”

백악관 당국자는 중러간 교역 중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동원해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리프 싱(사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국제경제 담당)은 28일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대담에서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모든 교역을



달리프 싱(사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국제경제 담당)

이와 함께, 싱 부보좌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2년 3개월 이상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에 사실상 전면적

방해할 의사는 없다”고 운을 뗐다.

싱 부보좌관은 “그러나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상품과 기술 거래를 막기 위해 우리(미국)와 파트너들은 제재와 수출통제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싱 부보좌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2년 3개월 이상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에 사실상 전면적

인 무역 금수조치를 동원하는 상황도 배제하지 않았다.

싱 부보좌관은 “금수 조치의 역사는 그리 훌륭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러시아가 경제를 전적으로 전쟁 기계를 위한 공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사실상 그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의 동결 자산 처리 문제와 관련해 주요 7개국(G7·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내부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TSMC, 외국인 지분 75%로 2년 새 최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최근 2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TSMC 주가의 급등에도 아직은 정점에 도달하지 않아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지난주 엔비디아의 뛰어난 실적 발표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감을 더 부풀리면서,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둔 TSMC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만 증시의 TSMC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난 24일 현재 이 회사 보유 지분을 거의 75%까지 끌어올렸다.



현 수준은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80% 이상을 보유했던 2017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글로벌 펀드들은 지난 4월 현재 대만 주식들에 대한 비중 축소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매수를 예고하는 신호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의견이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해외 투

자자들은 대만 자취안 지수 종목 중 TSMC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아시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기업이기도 한 TSMC는 AI 붐의 수혜주로 꼽히면서 올해 주가가 47% 상승했다.

앞서 TSMC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올해 1분기의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는 매출과 순이익 모두 감소했다.

또 지난해 초 대만 강진으로 일부 생산시설이 피해를 봤지만, 4월 매출은 AI 수요 덕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연결매출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59.6%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3월의 34.3%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핵주먹’ 타이슨, 비행기서 쓰러져 응급치료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58·사진)이 비행기 탑승 도중 몸 상태에 이상을 느껴 응급 치료를 받았다.

28일 AP 통신은 “타이슨이 27일 마이애미를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쓰러진 뒤 회복 중”이라고 보도했다.

타이슨 측은 “착륙 30분 전에 귀양이 발작해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다행히 지금은 회복했다”며 “타이슨은 자신을 도와준 의료진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슨이 탑승한 비행기의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고객의 의료적 요구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응급 구조대원이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타이슨은 오는 7월 21일 텍사스주 델



러스 AT&T 스타디움에서 제이크 폴(27)과 맞대결한다.

2005년 링을 떠났던 타이슨은 지난 2020년 11월 로이 존스 주니어와 경기를 통해 링에 복귀했다.

현역 시절 헤비급 챔피언으로 활약했던 타이슨은 ‘핵주먹’이라는 별명과 함께, 경기 중 에반더 홀리필더의 귀를 깨물어 ‘핵이빨’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갖고 있다. 이저기 기자

제77회 칸 영화제에서 트랜스젠더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아 프랑스의 한 극우 정치인이 “상은 받은 것은 남성”이라고 말해 고발당했다.

28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성소수자 인권 단체 6곳은 전날 트랜스젠더 배우에게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프랑스 극우 정당 르퐁케트 소속 정치인 마리옹 마레샬(34)을 고발했다.

이들 단체를 대리한 변호사 에티엔 데솔리에르는 “마레샬의 발언은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와 그들이 일상적으로 당하는 폭력과 차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폐막한 칸영화제에서는 프랑스 감독 자크 오디아르의 ‘에밀리아 페레스’에 출연한 배우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 아드리안나 파즈, 셀레나 고메즈, 조이 살다나가 여우주연상을 공동 수상했다.



스페인 배우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칸에서 열린 제77회 칸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후 무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들 중 가스콘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배우로, 칸영화제에서 트랜스젠더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은 건 처음이다.

이 영화는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하려는 멕시코 카르

텔 보스와 그를 돕는 여자들의 이야기로, 가스콘이 주인공 역을 맡았다.

이날 가스콘은 수상 소감으로 “고통 받는 모든 트랜스젠더에게 상을 헌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스콘이 상 받은 다음 날 마레샬은 엑스(X·옛 트위터)에 “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은 남성”이라며 “좌파에게 진보는 결국 여성과 어머니의 지우기”라고 수상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고발당했다는 소식에 이날 다시 엑스에 “어떤 사법적 합법도 나를 침묵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나는 진실과 현실, 그리고 여성 사색의 거부 편에 설 것”이라고 적었다.

마레샬은 프랑스 극우 정치인 장 마리 르펜의 손녀이자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의 조카다. 그는 현재 국민연합이 아닌 또 다른 극우 정당 르퐁케트 소속으로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 출마했다. 현예기 기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각별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메디케어 최초 신청부터 플랜 등록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사전 연락 바랍니다.) 8300 Boone Blvd. #500, Vienna, VA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1959년생이신 분, 새로 이주하신 분, 메디케이드 해당자, 직장보험, 복잡해 보이는 메디케어, 쉽고 간결하게 알려 드립니다.

저도 메디케어 해당자입니다. 제 보험을 찾는 마음으로 도와드립니다.

염은호 종합 보험 571-232-5022 8300 Boone Blvd #500, Vienna, VA 22182

네타냐후 “난민촌 폭격 비극적 실수” 라더니... 라파 진격했다

이스라엘 탱크들, 도심에 첫 진입
시가지 곳곳서 하마스와 총격전
EU, 17년만에 라파국경 관리 재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공습에 이어 본격적으로 탱크를 진격시킨 가운데 28일 라파 상공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 중심가로 탱크를 출격시켰다. 연이은 난민촌 폭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데 대해 ‘비극적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본격적인 시가전에 돌입하며 공세를 퍼부어 모양새다. 국제사회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군이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평가에 들어갔고, 유럽연합(EU)은 라파 국경검문소 관리를 재개할 뜻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28일(현지시간) 목격자를 인용해 이날 다수의 이스라엘군 탱크가 라파 중심가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목격자들은 라파 중심가에 있는 랜드마크인 알-아우다 모스크 인근에서 이스라엘군 탱크를 봤다고 전했다.

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부터 항공기와 탱크를 동원해 공격했고, 라파 서쪽으로 진격한 탱크는 주루브 언덕에 자리 잡았다.

이날 주루브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대원간의 총격전도 벌어졌다. 일부 목격자는 이스라엘군 장갑차 내부와 근처에 병사들이 없었다면서

원격조종 무인 장갑차를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군이 이스라엘-이집트 완충지대인 ‘필라렐리 통로’를 장악해 라파를 포위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심 깊숙이 들어가는 전면적 지상전을 강행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추후 관련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7일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잇는 라파 검문소를 장악한 데 이어 라파 주거 지역까지 진입하는 등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보고 교전을 이어

가고 있다.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라파 공격 중단 긴급 명령을 내린 지 이틀 만인 지난 26일에는 라파의 난민촌을 공습해 최소 45명이 사망하고 약 250명이 다쳤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난민촌 폭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전날 “비극적 실수”라면서도, 라파를 ‘하마스의 숨통’이라 주장하며 하마스 섬멸이라는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공세를 지속하겠다고 입장이다.

EU는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잇는 유일한 통로인 라파 국경검문소를 직접 관리하는 일을 17년 만에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EU 국경지원임무단(EUBAM)을 다시 라파 국경에 배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BAM이 국경을 관리할 경우 구호품 등이 보다 원활하게 드나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정 기자

X 데이터 무기 쥔 머스크, xAI에 60억불 투자유치 성공

(옛 트위터)

빅테크 AI 진격상부

‘학습 데이터’ 고갈 오픈AI에 도전
최근 거대언어모델 ‘그록1.5’ 발표
테슬라-오픈AI와 시너지 클 듯
WSJ “기업가치 240억 달러 추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8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오픈AI와 연합한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등 앞서 있는 경쟁자들을 추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xAI는 지난 26일 60억 달러(약 8조 2000억원) 규모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투자자로는 피델리티 등 대형 자산운용사와 앤드리스 호로위츠(a16z), 세쿼이아 캐피탈 등 미국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 캐피탈(VC)이 이름을 올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xAI의 기업가치를 240억 달러(약 32조 6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일론 머스크

‘제미니’ 등에 비해 기술 수준에서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유치한 대규모 투자금을 통해 그간 AI 기술 경쟁에서 밀려온 xAI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xAI가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풍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한다. xAI는 머스크가 소유한 누적 가입자 수 4억1500만명(지난해 말 기준·스테티스타 추산)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의 게시글을 AI 모델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X가 2021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하루 데이터 생산량은 ‘페타바이트(PB·고화질 영화 53만편의 분량)’ 규모다. AI 학습용 데이터 고갈에 시달리는 구글 등 경쟁사와는 대조적이다. 오픈AI도 지난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기업 레딧과 제휴를 맺고 AI 학습용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제공하기로 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레딧의 3대 주주다.

머스크가 소유한 테슬라와 xAI의 ‘시너지 효과’도 앞으로의 기대 요소다. 테슬라가 그동안 축적한 AI 자율주행 기술과 연구 성과를 xAI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다. IT전문매체 더인포메이션은 지난 1년간 3명의 AI 공학자

가 테슬라에서 xAI로 이직했다고 지난달 3일 보도했다.

인력 이동과 기술 공유 등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나 휴머노이드(인간과 유사한 이족보행 로봇) 사업에 xAI의 기술이 활용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WSJ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연구로 쌓은 시각 데이터와 xAI가 개발한 AI 기술이 앞으로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오픈AI 휴머노이드 로봇에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xAI의 등장으로 빅테크 간 AI 기술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선두주자 오픈AI는 올해 차세대 LLM ‘GPT-5’를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출시한 ‘GPT-4o’를 통해 AI 모델의 반응속도 등 기술력 면에서 경쟁사를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연례 개발자 행사 I/O 2024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 등 서비스 전반에 AI 모델 ‘제미니’를 적용하고, AI 비서 서비스인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AI 기술 후발주자인 애플도 다음 달 열리는 연례 개발자 회의 WWDC에서 생성AI가 접목된 기술을 공개하며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윤상언 기자

일본 “노인 기준 65→70세 올리자”

게이단렌 회장 등 정부에 제안
70세 고용법 이어 고령화 대책



없어 ‘건강하게 사는 나이’를 의미하는 건강수명은 남성이 72.7세, 여성이 75.4세에 이른다. 김 연구원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많다 보니 노령 연령 연장으로 그만큼 사회복지 혜택 적용 기간을 늦추겠다는 숨은 뜻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고령자 기준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8일 일본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도쿠라 마사카즈(土倉雅和·스미토모 화학 회장)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 등 민간인원들이 고령자 나이 기준을 5세 늘리자고 제안했다. 자문회의에 속하는 민간 의원의 제안은 말 그대로 제안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일본 후생노동성 ‘건강용어 사전’엔 고령자가 어떤 이들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표기돼 있지 않다. 관련 법령(노인복지법)에도 고령자 연령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연령 기준 65세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65세부터 노인기 초연금, 돌봄 보험 등을 적용받고 공공시설 및 교통요금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김명중 닛세이 기초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일본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81.6세, 여성은 87.7세. 질병·부상

도쿄=김현에 특파원

없어 ‘건강하게 사는 나이’를 의미하는 건강수명은 남성이 72.7세, 여성이 75.4세에 이른다. 김 연구원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많다 보니 노령 연령 연장으로 그만큼 사회복지 혜택 적용 기간을 늦추겠다는 숨은 뜻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일본 정부는 70세 고용을 위해 기업이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켜 2021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기업 토요타도 오는 8월부터 직원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토요타의 현재 정년은 60세인데, 일단 정년을 마친 뒤 70세까지 직원을 재고용하는 ‘계속 고용’의 방식으로 나이를 70세까지 늘리게 된다.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교인들 “설교 아닌 목회자 인품, 인격 중요”

교인에게 목회자 물었더니

신앙 생활에 있어 목회자는 전부가 아니다. 목회자를 '주의 종' '기름부은 받은 사람' 등이라 여기며 맹목적으로 추앙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됐다. 목사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교인과 같은 성도다. 교회 내에서 역할이 다를 뿐 높고 낮음 같은 건 없다. 그럼에도, 교인이 목회자에게 갖는 기대는 크다. 설교, 심방, 상담 등에서 많은 것을 원한다.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어떤 점을 바랄까.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이 부분을 조사했다.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설교 주제로 꼽은 것은 '위로와 평안'이었다. 한 한인 교회에서 교인이 주차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교인들에게 크게 다섯 가지를 물었다. 교인의 신앙적 욕구를 ▶설교 ▶신앙 교육과 훈련 ▶심방 및 상담 ▶목양 ▶목회자 등으로 분류했다.

먼저 설교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부분이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주제와 교인이 원하는 설교 주제의 차이를 조사했다.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주제는 '믿음과 순종(27%)'이었다. 이어 '하나님의 축복·형통한 삶(17%)'이었다. 반면, 교인들은 듣고 싶은 설교 주제로 '위로와 평안(16%)'을 꼽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측은 보고서에서 "교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위로와 평안'이란 주제는 목회자의 설교 주제에서는 그 빈도가 낮은 편이었다"며 "위로와 평안은 교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에 비해 자주 못 듣는 설교 주제"라고 전했다.

그래도 교인들은 현재 출석중인 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에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인 10명 중 7명(73%)은 출석하는 교회 설교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22%) 또는 불만족(5%)이라고 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문제는 설교 만족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로 보면 교인들이 말하는 설교 만족 비율은 2012년(88%), 2017년(77%), 2023년(75%) 등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교인들은 신앙 교육을 받고 싶어했다.

교인 10명 중 7명(70%)이 교회에서 신앙 교육 또는 훈련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원하는 설교 주제 '위로와 평안' 반면, 목회자들은 '믿음과 순종' ”

“ 목회자가 가정 방문 '심방' 필요한데 교인들 '정작 심방 받고 싶지 않아' ”

“ 만약 상담받으면 의사보다 목사 40대, '목회자의 관심, 돌봄 중요' ”

연령별로 보면 40대(79%)가 가장 높다. 이어 60세 이상(77%), 50대(70%) 등의 순이다. 상대적으로 19~29세:30대(각각 56%) 등은 신앙 교육에 대한 욕구가 낮았다.

가장 받고 싶은 신앙 교육은 무엇일까.

'성경에 대한 체계적 교육(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적 영성 향상 교육(38%), 학교 및 일터에서의 삶(29%),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세(27%) 등의 순이다.

개신교에서는 목회자가 교인의 집을 찾아가 만나는 것을 '심방'이라고 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교인들에게 심방에 대해서도 물었다. 응답자 중 61%가 '심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작 심방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없다(61%)'고 응답했다. 특히 교회 출석자 중 절반 이상(54%)은 목회자에게 개인 또는 가정사로 상담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했다.

또, 출석교회 목회자에게 상담받은 경험도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무려 84%에 달했다. 대신 만약 상담을 받았다면 의사보다는 목회자를 꼽았다.

응답자 중 67%(중복응답 가능)는 개인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 사람으로 출석교회 목회자를 원했다. 이어 '상담 전문가(40%)' '지인(23%)' 등을 꼽았다. 의사는 9%에 그쳤다.

출석교회 목회자에게 상담받은 경험이 있는 교인 2명 중 1명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51%)'고 답했다. '문제 해결은 안 됐지만 위로와 힘이 됐다(44%)'고 응답했다. 대부분이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목회자에 대한 관심 또는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를 연령별로 보면 40대(43%)가 가장 높았다. 반면, 실제 교회 내에서 목회자로부터 관심 또는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40대(34%)가 가장 낮았다.

출석교회 규모로도 분석해봤다.

목회자에 대한 관심, 돌봄 등을 받고 싶은 욕구는 교인 수 1000명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43%)에게 가장 높았다. 반면, 이를 돌봄을 받고 있다고 체감하는 것 역시 1000명 이상 교회 출석 교인(36%)에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관심 또는 돌봄을 받는다고 느낄까.

교인들은 '기도 부탁을 들어주거나 고민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때(48%·중복응답 가능)'라고 답했다. 이어 '나의 상황과 신앙에 관심을 가져줄 때(45%)' '목회자가 반갑게 인사할 때(34%)'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줄 때(28%)' 라고 응답했다.

반면, 목회자로부터 관심 또는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인사를 해도 사무적, 형식적으로 할 때' '나와 가족 신앙의 변화가 있어도 관심이 없음(각각 3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기 심방 외에는 심방을 받아보지 못함(33%)' '나의 이름을 모를 때(25%)'라고 답변했다.

교인들에게 목회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물었다.

교인들은 출석교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품·인격(31.2%)'을 꼽았다. 이어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25.5%), 설교 능력(14.2%), 기도의 능력(7.9%), 가르치고 훈련하는 능력(4.9%) 등의 순이다. 반면, 교인들은 이러한 요소에 대해 충족도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교인들은 출석교회 목회자의 인품과 인격을 가장 중요시했지만 충족도는 오히려 4위(5점 기준 4.02점)였다. 충족도만 놓고 보면 '가르치고 훈련하는 능력(4.12점)' '설교 능력(4.10점)' '기도의 능력(4.0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내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유효 표본)을 상대로 진행됐다. 신뢰도는 95%(오차범위 ±3.1%)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 한국교회탐구센터 등이 함께 조사했다.

정열 기자

동물 아래서

동물원에 있는 낙타와 우리

야기 낙타가 묻는다.

“엄마 우리 발은 왜 이렇게 넓적하고 커?”

“그야 사막을 걸을 때 모래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지?”

“근데 눈썹은 왜 길지?”

“사막에서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거란다”

잠시 후 야기가 다시 물었다.

“그럼 등에는 왜 이런 혹이 있어?”

엄마는 조금 귀찮아 하며 말했다.

“그야 사막에는 물이 없으니까. 물

을 저장해야 하거든”

그러자 야기 낙타가 정말 이상한 듯 물었다.

“근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는 거지?”

낙타는 사막에서 가장 낙타답다. 우리는 어떨까. 놀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지으셨다. 인생은 우리가 떠올리는 행복이나 부유, 혹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있을 때 가장 사람답다는 말이다.

안식은 힘들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당연히 힘들거나 피곤해서가 아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위한 것이고 특별히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안식은 멈춘다는 말하기에 여기서 멈추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 안식도 바쁘다.

이날 인격자이신 창조주는 자신을 닮은 인격자와 대화하신다. 소통이 시작되고 서로 알아가는 날이 시작되었다. 안식은 소통이다.

사람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알아가고 살 중의 삶과 쉼의 쉼이 되어 가는 날이다. 하나님뿐 아니라 서로 열

심히 사랑한다. 우리의 모든 말과 손과 발까지 아니 우리의 생각도, 안식 안에서 존중과 사랑을 향한다. 안식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서로 즐겁게 한다. 그렇게 안식은 기쁘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에 안식은 사람을 빛나게 하고 그 빛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람은 행복이 된다. 안식은 영광이다. 빛나는 날이다.

이렇게 안식을 위해 지으셨는데, 우리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라 내가 만든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

할 수 없다. 우리의 말은 서로에게 상처를 낸다. 하나님을 떠나나 자신에게 묶여 버릴 때, 우리는 함께 빛나지 않고 혼자 빛나고 싶다. 가지지 못해 절망하고, 가졌기에 무시한다.

사람은 자신을 위한 세상을 욕심으로 세운다. 안식은 우리를 위한 세상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세운다. 신자는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다. 나의 세상은 십자가에서 멈춘다. 안식이다. 내 욕심도 십자가에서 끝난다. 그리고 예수님과 시작한다. 말을 걸고 사랑하고 빛나기 시작한다.

우리의 안식은 바쁘다.

한성윤 목사·나성남포교회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홈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정심정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703-259-5617, 410-241-2520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제,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aquaviwater.com

AQUAVI
아쿠아비 정수기·공기청정기

\$1만 내시고 아쿠아비 정수기를 설치하세요!

건강한 물을 월 \$22에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1 첫 달

불만족시 30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철회해 드립니다.

NO 디파짓·설치비·무상 필터교환·AS

*친구에게 추천해 주시면 비타민 샤워필터 3개(\$60 상당)를 드립니다 *

언더싱크형 정수기

미네랄수 \$22 월 (Tax 포함)

알칼리수 \$27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대리석 타공시 \$50 별도

냉·온 정수기

Refurbished

미네랄수 \$25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0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New

미네랄수 \$28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3 월 (Tax 포함)

등록비 \$50 별도
*3년 의무 사용



알칼리수

아쿠아비의 약알칼리 환원수 필터는 미네랄과 활성수소가 풍부한 물을 생성하여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물맛이 좋습니다.

무료 설치
누구나 손쉬운 필터 교체
SAVE MONEY



미네랄수 \$199

미네랄수 \$179

미네랄수 \$199

미네랄수 \$279

알칼리수 \$249

알칼리수 \$219

알칼리수 \$239

알칼리수 \$319

아마존과 월마트 온라인에서 판매중 amazon Walmart

간편 설치

비타민 샤워필터



피부 미용을 위해
비타민으로
샤워하세요!
아토피, 녹물,
염소 제거에도
좋아요.

\$20

6,000여 가정, 사무실, 식당, 교회, 병원,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 등에서 사용중

(Northside Hospital,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아틀란타 천주교회, 몽고메리 현대 중공업, 제주 사우나, 뉴저지 한인회, 뉴욕·뉴저지 전지역 파리바게트, 뉴욕중앙장로교회, 뉴욕 중앙일보 외)

AQUAVI
아쿠아비 정수기·공기청정기

워싱턴 디씨 (VA/MD)

571.677.2555

www.aquaviwater.com

뉴욕
뉴저지

201-258-3404 / 917-410-2030
776 Grand Ave., Ridgefield, NJ 07657

조지아
알라바마

404-496-6777
3741 Venture Dr., #310, Duluth, GA 30096

'중동 큰손' UAE 대통령 왔다, 이재용·최태원·정의선 총출동

무함마드 방한, 세계 총수와 미팅
첨단기술·방산·건설 등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친교 행사 및 만찬을 함께했다.

UAE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왕세제 시절 한국을 다섯 차례 방문했으며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지만, 대통령 자격으로 한국에 온 적은 없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만나 첫 일정으로 창덕궁 후원을 함께 찾은 뒤 인근 정원인 부용지 일대를 산책했다. 이어 궁중무용 '학연화대무(鶴蓮花臺舞)'를 관람했다. 대통령실은 "공연은 국조(國鳥)가 있을 정도로 새를 좋아하는 UAE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의미에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창덕궁에서 차담을 한 뒤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을 했

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UAE 정상 최초로 국민 방한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 부부에 사의를 표하고, 방한 일정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고 한다. 만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 무함마드 대통령이 탑승한 UAE 대통령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자 한국 공군 전투기 'F-15K' 4대가 호위를 하며 서울공항 도착을 안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UAE 국민 방문에 대한 답방이기도 하다. UAE는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의 국민 방문 당시 300억 달러(40조7800억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한 바 있다. 양측은 총 48건의 MOU를 맺기도 했다.

이들 일정으로 방한한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교 일정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국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서울 종로구 창덕궁 부용지 인근을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세계 총수들과 만났다. 서울 시내 호텔에서 진행된 면담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

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1시간가량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1세션에선 UAE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들이 추가 협력 방안 등을 설명

했고, 총수들은 각 그룹의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과 방산·에너지·건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어진 2세션에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 등 각 산업계 대표 기업인과 면담했다.

양국 정상은 29일 공식 회담을 한다.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기술 등 네 가지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UAE는 탄소·쓰레기·자동차가 없는 도시를 목표로 마스다르 시티를 개발하고 있고, 아즈반 태양광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UAE 국민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분야가 에너지·방산뿐 아니라 수소·바이오·스마트팜·디지털 전환·메타버스 등으로 다변화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추가 협력 방안 등이 회담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현일훈·최승을 기자

검찰, 편법대출 의혹 양문석 조사한다... 딸은 소환 통보

11억 대출과정 등 불법 수사 중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안산갑) 국회의원 당선인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조만간 양 당선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

(부장 이동근)는 지난 2021년 4월 새마을금고가 양 당선인의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대출을 내준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당선인 딸에게는 소환 통보를 마쳤고, 양 당선인에게도 조만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40평대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듬해인 지난 2021년 4월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20대인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았다. 대출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측에 제

출한 서류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총선 당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양 당선인은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이었던 뿐 불법은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양 당선인의 잠원

동 아파트와 경기 안산의 주거지, 대출을 시행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업체인 업체 등을 압수 수색했다. 압수 수색명장에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외에도 지난 총선 기간 사기 대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데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의 공소 시효는 오는 10월에 만료된다.

신혜연·손성배 기자

30년 뒤 인구 4627만명... 세종·경기 빼고 모든 시도서 감소

2022~2052 시도별 인구추계

21년 뒤엔 모든 시도서 출생<사망
서울 중위연령 43.8 → 56.1세로

30년 뒤 대한민국 지도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17개 시도 중 세종과 경기도 두 곳뿐인 것으로 전망됐다. 2년 전 예측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 세종은 철저한 계획도시라는 점에서, 또 경기도는 수도권 집중의 결과로만 봐도 '지방 소멸' 시계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의미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2052년 한국 인구는 4627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22년 인구(5167만 명)의 89% 수준이다. 추계대로라면 30년

뒤 인구가 2000년 인구(4613만 명)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이 추계마저도 출산율과 기대수명, 인구의 국제 이동 등이 중간 수준(중위)을 유지할 경우다. 온누리 통계청 인구추계팀장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저위 추계로 가정할 경우 2052년 인구가 4225만 명까지 쪼그라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계에서 주목하는 건 수도권 집중의 영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다.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0.5%에서 2052년 53.4%로 늘어난다. 시·도별로 보면 2052년(이하 중위 시나리오) 17개 시·도 중 서울·부산 등 15곳의 인구가 줄어든다. 부산(-85만 명), 경남(-69만 명) 등의 인구는 30년 전보다 20% 이상 감소한다. 서울(-149만 명), 경북(-46만



명)도 같은 기간 인구 감소 폭이 15% 안팎이다. 인구가 늘어나는 건 세종(16만 명)·경기(12만 명)뿐이다.

2010년 이후 국가가 주도해 행정도시로 조성한 세종과, 수도권 집중으로 버티는 경기를 제외하고는 주요 대도시조차 인구가 쪼그라든다는 얘기가. 문제는 2년 전인 2022년 추계(2020~2050년)보다 전망이 더 나빠졌다는 점이다. 당시 추계에선 30년 뒤 인구가 늘어나

는 지역이 세종·경기·제주·충남 4곳이었다. 하지만 2년 만에 세종·경기만 남았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인구 소멸' 시계가 더 빨라졌다. 세종조차 자체 출산율(지난해 0.97명)은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2.1명)에 한참 못 미친다. 그나마 세종도 2045년부터 연간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를 피할 수 없다. 최근 세종 인구가 늘어난 건 인근 총칭권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영향이 크다.

이상립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소 센터 책임연구원은 "세종은 신도시인 만큼 좋은 보육 환경을 갖췄지만, 민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어려워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세종시 같은 도시를 여러 곳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참고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분석했다.

전체 국민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나이(중위연령)는 2022년 44.9세(서울 43.8세)에서 2052년 58.8세(서울 56.1세)로 올라간다. 현재 '중년'으로 불리는 나이가 미래엔 '청년'으로 바뀌는 셈이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전남(64.7세), 경북(64.6세), 경남(63.5세)은 2052년 중위연령이 65세에 육박한다. 그나마 젊은 편인 세종(52.1세), 서울(56.1세), 대전(56.4세)도 중위연령은 50대다.

흔히 말하는 '한창 일할 나이'를 통계상 분류한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22년 3674만 명에서 2052년 2380만 명으로 30년 새 35.2%(1295만 명) 줄어든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역에서 일하고, 소비하고, 여가를 즐기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식의 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

85세

\$406,309

25년후

3% 복리인상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앤디킴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리스버그 싱글홈	레스턴 콘도	로턴 타운홈	클리프턴 싱글홈
PENDING	PENDING		
\$1,110,000	\$426,000	\$580,000	\$840,000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방4, 화2.5, 차고2 새지붕 등 업그레이드 많이함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 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여당, 전원 출석해 특검법 저지... 야권선 '샤이 반대표' 나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
여당, 이탈표 우려됐지만 결국 막아
야권 내 "비명 공천학살 후유증"
야당, 22대 국회서 특검법 재추진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선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특검에 대한 공개 찬성문자가 5명으로 늘면서 이탈표를 우려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무기명 투표 특성상 누가 찬성했는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본회의 직전에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무거웠던 분위기는 표결 결과 발표 후에야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찬성표가 범야권 의석수(180석)에 여당 찬성표(5석)를 더한 185표보다 6표 적었다. 야권에서 최소 6명이 이탈할 것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전체 의원에게 "비상 상황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일대으로 뭉쳐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며 "의원님 여러분의 총정과 고뇌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반대표(111표)가 국민의힘 의석수(113석)보다 2표 적다. 황보승희(우리공화당)·하영제(무소속) 의원 등 여당 밖 친여 성향 의원들이 거들었다고 해도 당내 이탈표를 한 자릿수"라고 말했다.

표결 후 더불어민주당도 "이수진 의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범야권이 전원 출석했다. 그만큼 특검법에 관심이 높고 결집을 한 것"(원내 관계자)이라고 평가했지만 여당 내 두 자릿수 이탈을 확인하며 "부결돼도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던 전날의 분위기는 아니었다. 야권 관계자는 "총선 공천 후유증이 일부 나타난 것 같다. 여당에 공개 찬성 5명 외 '샤이 찬성' 의원이 있었다면, 범야권 '샤이 반대'도 있었다는 뜻"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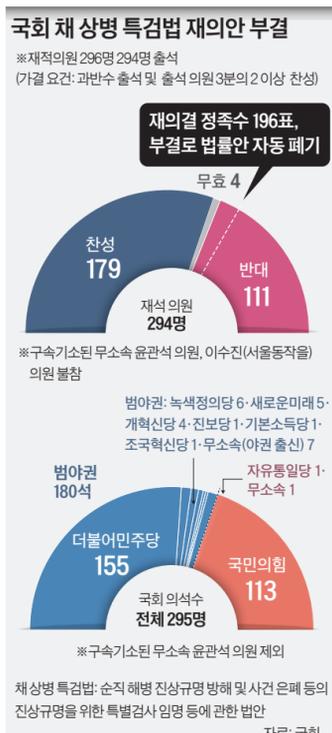
말했다. 재적 의원(296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던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만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수감 중인 윤 의원과 달리, 이 의원은 자발적으로 기권을 택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뒤 탈당하면서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이 대표를 공개 저격했던 인사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야권 의원들은 입장 직전 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하라,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하라"고 외쳤다. 회의 시작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정치 편향적인 검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을 경우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 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자, 민주당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등 고성아 터져나왔다.

총선 후 최대 현안이던 특검법안이 이날 폐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숨 돌리게 됐다. 22대 국회에서 이어질 야당의 줄특검 공세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확인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여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내에선 표단속에 나섰던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계의 목소리에 당분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비판은 이어질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표결 직후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고 SNS에 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새물·전민구·김정재 기자



제22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재적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가결에 필요한 196표를 얻지 못해 부결,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

상임위·법사위 계류돼 자동 폐기
이태원법 외엔 협치한 법안 없어
"입법기관이 헌법 책무 버려" 비판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까지 연금 개혁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2대 국회로 연금개혁 과제를 넘기게 됐다. 추

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차례 당의 방침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입장이었다.

여야 정쟁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 있는 민생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됐다. 28일 기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1778개였다. 법사위 고유 법안이 1665개, 여타 상임위를 통과해 회부된 법안이 113개

다. 법사위는 2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30여 개를 의결한 이후, 이달 2일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특별법을 원포인트로 처리한 것 외엔 아무런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법사위에 묶인 민생 법안의 대표 사례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케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꼽힌다. 변호사의 금지 광고 유형을 대한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만들도록 한 세종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퇴진론 나오는 이기흥·정몽규...체육회, 장기집권 길 터주나

(체육회장 2선·축구협회장 3선)

산하단체장 연임제한 조항 폐지
31일 정관 개정안 발의 예정
체육회 "임원 맡길만한 인물 부족"
일각 "이·정 장기집권 사전포석"

우별도 검증은 거치도록 한 규정의 폐지를 추진한다. 28일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대한체육회(체육회) 문건(제31차 이사회 안건)에 따르면, 오는 3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체육회

이사회는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단체 임원의 연임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다룬다. 안건이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7월 초 예정)를 통과하면 체육회는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하게 된다.



이기흥 정몽규

대한체육회가 체육회장을 포함해 산하 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에 나설 경

현재는 3선 이상 연임을 원하는 단체장의 경우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재정 기여도 ▶해당 종목 경쟁력 강화 여부 ▶국제무대 영향력(국제단체 임원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출마를 승인 또는 반려한다.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려는 표면적 이유는 인력난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지방 체육회와 종목단체의 경우 임원

을 맡길 만한 인물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며 "그나마 체육발전에 의지를 가진 인물이 3선 이상 제한이라는 족쇄에 발목 잡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체육회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체육회 산하단체 임원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지난해 2월 체육회는 기간을 선거일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 부동산 전문지식
- 협상능력
-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오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I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야당, 전세사기법도 단독처리... "새 국회도 협치없다 예고"



21일 거부권을 행사한 지 1주일 만이다. 이날 김진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법사위 계류로 폐기된 주요 민생 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운영비용 국가 지원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안
사기범죄 신고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위탁입산부 지원 추가, 청소년 한부모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민법 개정안(구하러법)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 시 상속권 상실
변호사법 개정안(로톡법)
금지 광고 유형을 대한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함

각 상임위 계류로 폐기된 주요 민생 법안

근로기준법·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모성보호 3법)
육아휴직 및 난임치료 휴가 확대,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완화
국가재정법
정부 재정준칙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2030년까지 연장

야당, 여당 반대 법안 5건 강행

유공자법, 동의대 사건 등 혜택 우려 전세사기법, 피해 구제만 4조 들어 보훈부·국토부 "거부권 건의할 것"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 법은 지원 대상이 논란거리다. 이 법안 제4조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여론에선 심사 기준이 불명확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부산 동의대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도 유공자로 적용될 수 있다며 입법을 반대했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법안은 보훈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정체성을 흔들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여당 의원 퇴장 속에 재석 의원 17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세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물어준 뒤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골자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통과를 강하게 반대했다. 피해 구제 비용이 3조~4조원이나 들어가는 데다 서민이 청약에 위해 맡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을 투입하는 것도 문제라는 논거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마디로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국가가 갚자는 것으로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 직후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안하겠다"며 "정부안과 야당안을 충분히 논의해 국민이 소상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국의 장관이 국회 입법권을 이렇게까지 능멸해도 되는 거냐"고 반발했다.

이 밖에 한우 농가에 경영 개선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당이 처리를 버려던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았다.

거대 야당이 21대 국회 본회의의 마지막 날까지 완력으로 민감한 법안을 처리하자 "협치가 실종된 22대 국회의 예고편"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사회적 논의도 성숙해 있지 않은 법안들이 일방 독주로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에 대해 29일 당 차원에서 거부권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겠다는 뜻이지만, 여당이 거부권을 제안하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들은 22대 국회로 넘어가지 않고 즉각 폐기된다.

손국희·이유정·강보현·김정재 기자

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관 정원을 지금보다 370명(정부안)~1000명(민주당 이탄희 안) 늘리도록 한 법관증원법(판사정원법 개정안) 등은 그 필요성을 두루 인정받았지만 결국 폐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 마지막엔 본회의를 급히 열어 민생법안을 털어냈는데, 이번 국회는 특급 재투표 같은 정치적 사안에만 매몰돼 민생법안을 외면했다"며 "입법 기관으로서의 헌법 책무를 저버린 작태"라고 쓴소리를 했다.

기업들이 기대했던 법안들도 줄줄이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

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K칩스법은 반도체·2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 기술 시설에 기업이 투자하면 세액의 15~25%를 돌려주는 법안으로,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실망이 크다. 세계 각국이 보조금을 뿌리며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마저 사라지면 한국의 투자 매력도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기준을 완화한 유통법 개정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내용의 고준위방폐법이 멈춰섰다.

C커머스(중국 유통업체)의 공세에 흔들리고 있는 유통업계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0시~오전 8시)과 의무휴업일(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규제 골레를 이번 국회에서도 벗지 못해서다.

원전업계는 사용 후 남은 위험물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처분하는 중간저장시설 및 연구처분장을 짓지 못하면 2030년 주요 원전이 '셧다운'될 것으로 우려했다.

최현주·정용환 기자

1년 전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선거권 제한을 우려해 문체부가 이를 반례하자 공직선거법과 같은 선거일 90일 전으로 바꿔 재추진하는 것이다.

체육회의 이런 움직임에 의심의 시선이 쏠린다. 일련의 규정 변경 추진이 회장 재출마를 노리는 이기흥 체육회장이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의 장기 집권을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체육회가 선출직 공무

원 출신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려는 배경은 체육회장 출마를 저울질 중인 한 국회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단 해병대 캠프 체임 등 구시대적 행적으로, 정 회장은 파리올림픽 본선행 좌절 등 한국축구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 장본인으로 나란히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내년 초에 임기가 끝나는 이기흥 회

장이나 정몽규 회장은 아직 차기 도전을 공개 선언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전 의지를 숨기지도 않는다. 재선인 이기흥 회장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내가 세 번이 아니라 다섯 번을 나와도 문제가 없다. 3선을 하든 5선을 하든 그건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규 회장도 4선 도전을 묻는 취재진에 "(2018년에) 축구협회장 임기를

3연임까지로 제한하게 협회 정관을 고치려 했지만, 체육회와 문체부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요컨대 4연임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도전 의사를 애들러 표현한 셈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통상적으로 선거 관련 규정을 고칠 땐 차기 집행부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도록 설정하는 게 관례"라며 "이번 개정안이 이기흥 회장의 선거에 어

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해둔 상황에서 진정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영노 스포츠 평론가는 "체육회가 추진하는 정관 개정은 시대상이나 체육계 내부 분위기에 역행하는 내용들"이라며 "지역 체육단체의 구인난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체육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지훈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정선화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5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센터빌 타운홈
방3+화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H미트 부근
\$56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
\$730,000



센터빌 콘도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임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꼭,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김정은 조바심이 부른 위성 실패... 재발사 예고도 못했다

▶ 1면 '정찰위성'에서 이어집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 등이 포함된 3국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른바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운운하는 공동 선언이 발표됐다”며 문제 삼았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중국도 참여한 정상급 결과물에 포함된 것 자체가 북한에는 충격적인 셈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이 참석한 정상회의에 대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비난한 건 이례적”이라며 “앞선 사례로는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9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비난했던 게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 배치로 관계가 틀어지기 전인 2014~2015년 무렵 이뤄졌던 한·중 간 ‘허니문’을 김정은이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마음에 두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한·일·중 정상회의의 공동선언에서 “3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올해) 함께 활동한다. 유엔 안보리 등 다자간 협



28일 한·미 연합 공대공·공대지 실사격 훈련에서 전투기가 미사일을 쏘고 있다(왼쪽 사진). 일본 NHK가 27일 촬영한 북한 위성발사체의 폭발 장면. [연합뉴스]

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한 건 김정은으로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북한 전체 대외 교역량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제재 이행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고착화하려고 했던 북한의 계산이 망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노골적인 반발은 최근 북·중 관계에 균열이 생겼단 뜻으로 향후 양국 관계가 다소 경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실패 위험성을 안고도 정찰 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 역시 대내외적인 ‘데드라인’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김정은의 초조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간 제재 때문에 자체 기술로 위성을 개발해 온 북한이 이번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다는 게 정설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가항공우주 기술총국은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석유발동기의 동작 믿음성(신뢰성)에 사 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초보적인 결



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산화제로 적연질산, 연료로 다이메틸 하이드라진(UDMH)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존 발사체 엔진인 ‘백두산 엔진’과는 다른 방식으로 러시아의 기술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발사 실패 후 곧바로 재발사 계획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러시아의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실패 원인 규명은 물론 재발사 일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1월 미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이 본격화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입장에서 김정은의 효용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으로서는 북·러 협력의 ‘유효기간’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각종 신행 미사일의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지막 퍼즐’인 위성 보유에 조바심을 내는 모습”이라며 “김정은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올해 위성 3기를 더 쏘아올리겠다고 공언한 것이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박현주·이근평·정영교 기자

군 “1단 추진체 연소 문제 추정” 러시아서 엔진기술 넘겨받은 듯

지난 27일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의 실패 원인에 대해 군은 “1단 추진체의 연소 계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신형 위성 운반 로켓”으로 밝힌 것과 관련, 군은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이전 등을 바탕으로 1단 엔진의 종류를 높은 수준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패한 도발이지만, 한·미는 이날 서해 해상 사격장에서 연합 공대공·공대지 훈련을 실시하며 역지력을 과시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8일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이 초기에 폭발했기 때문에 초 단위의 비행 데이터 분석을 하는 중”이라면서 “1단계의 폭발로 미뤄볼 때 연소 계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중 폭발이 엔진의 밸브 혹은 엔진 자체에서 연료나 산화제가 누설돼 일어났을 가능성을 크게 보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러시아 기술 엔진으로 발사한 ‘나로호’도 2009년 첫 발사에서 페어링(위성 보호 덮개)이 분리되지 않아 실패했다. 2010년 2차 발사에서는 1단이 공중 폭발했다.

액체 산소-케로신으로 작동하는 엔진은 추력은 높지만, 관리가 까다롭다.

장영근 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지상에서 액체 산소를 조제(섭취) 영하 183도)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탄도미사일에는 극저온 추진체를 사용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북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실패

27일 오후 10시 44분쯤 발사

10시 46분쯤 로켓 1단, 비행 중 공중 폭발

추정 위치

예상 경로

북한, 28일 오전 12시 22분 발사 실패 인정

사고 원인을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석유발동기의 동작 믿음성(신뢰성) 문제로 초기 분석

	기존 발사체 엔진 (백두산 엔진)	신형 발사체 엔진
산화제	적연질산	액체산소
연료	다이메틸 하이드라진 (UDMH)	석유 (케로신 추정)

자료: 북 조선중앙통신, 합동참모본부

세상의 벽 허문 창조적 혁신가들



“제가 하는 연구가 논문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매일 힘을 내서 연구실에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28일 서울 삼양동 중앙일보 빌딩에서 열린 제15회 홍진기 창조인상 시상식에서 과학기술 부문 상을 받은 차미영(44) 기초과학연구원(IBS) CI 단장 겸 KAIST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다.

차 교수는 데이터를 다루는 전산학을 활용해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액션러블(actionable) 기초과학’ 분야의 대표주자다. 허위 정보와 빈곤, 재난 탐지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전산학과 인공지능(AI)이라는 도구로 분석한다. 연구 업적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한국인 최초로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단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는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면 다양한 분야와 협업이 필수적인데, 많은 분이 이 과정에 함께해 줘 좋은 결과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홍진기 창조인상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 발전기에 정부·기업·언론 분야에서 창조적인 삶을 실천한 유민(維民) 홍진기(1917~86) 전 중앙일보 회장의



왼쪽부터 김명자 심사위원장, 진솔 지휘자, 차미영 기초과학연구원(IBS) CI 단장 겸 KAIST 교수, 윤용로(사)한마음교육봉사단 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겸 중앙화동재단 이사장. 장진영 기자

유지를 받들어 2010년 제정됐다. 과학·기술·사회·문화예술 등 3개 부문에서 창조적 업적을 이룬 이들에게 매년 시상해 왔다.

사회 부문 상을 받은 사단법인 한마음교육봉사단은 지난 10년간 다문화 가정의 엄마 교육에 매진해 온 단체다. 이미 18만 명에 이르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미래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 시대를 맞은 국가적 과제가 됐다. 이를 위해 다문화 학생들이 국내 정규 교육과정 이수라는 첫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과정엔 학교만큼이나 가정 교육이 중요하다.

봉사단은 전국 24곳에 엄마학교를

운영해 그 기초를 닦고 있다. 봉사단의 윤용로 이사장은 수상 소감에서 “다문화 가정에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교육해 그 가정의 미래인 어린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족 대표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겸 중앙화동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창조인이라 기존의 틀을 깨고 나와 새롭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며 “오늘의 수상자들이 더욱 정진해 후세가 기억하는 창조인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현철 논설위원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버지니아 오피스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담 및 신분 변경

(Eng/Kor) (구원뱃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의원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우리말 바꾸기

‘에요’·‘에요’의 구분법

다음 중 바르지 않은 것은?

- ㉠ 내가 한 게 아니에요
- ㉡ 생각대로 잘될 거예요
- ㉢ 저 사람은 누구예요
- ㉣ 지금 어디예요

‘-에요’는 용언(동사·형용사)의 어간 또는 명사와 결합해 설명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말(종결어미)이다. 그러나 어떨 때는 ‘에요’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에요’가 되기도 해 헷갈린다.

㉠의 ‘아니에요’처럼 ‘-에요’가 용언(동사·형용사)의 어간과 결합할 경우에는 어간에 ‘에요’만 붙는다. 즉 ‘아니+에요→아니에요’가 된다. 그러나 ‘-에요’가 명사와 결합할 경우 명사를 서술어로 만들 때 쓰이는 조사 ‘이’가 추가된다. 즉 ‘책+이+에요→책이예요’처럼 명사에는 ‘이예요’가 붙는다. 반침이 없는 명사일 때는 ‘이예요’의 준말인 ‘에요’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의 ‘거예요’ 역시 이러한 예다. ‘거’는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거’가 명사이므로 ‘-에요’와 바로 결합하지 못하고 ‘이’가 추가돼 ‘거+이+에요’가 된다. ㉢ ‘누구예요’도 ‘누구’가 명사이므로 ‘누구+이+에요’가 되고 반침이 없는 명사이므로 자연스럽게 ‘에요’와 결합하면서 ‘누구예요’가 된 것이다. ㉣ ‘어디예요’ 역시 ‘어디’가 명사이므로 ‘어디+이+에요’, 즉 ‘어디예요’가 돼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

양용 사건에 입 다문 정치인은 꺼져라



김필성
치과의사·
월서임플란트 원장

경찰 폭력에 한인 규탄 목소리 잠잠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와 천양지차
선거철 돈과 표 달라던 한인 정치인
이번에 침묵 지키면 존재 필요 없다

할 지경이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게 목숨을 잃었을 때 흑인 사회가 보인 반응과 너무도 다르지 않나.

특히 놀라운 점은, 선거철만 되면 한인의 지지와 후원금을 바라며 문턱이 닳도록 커뮤니티를 찾아오던 그 많은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이다. 모두 자랑스러운 한인이고, 한인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 약속하지 않았던가. 심지어 어느 기자가 이에 관해 질의했더니, 자기 관할이 아니라 말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는 기사를 보면 화가 치민다.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의를 보고도 꼭 참으시는 분들이 선거철엔

왜 너도나도 전국에서 자기 지역구도 아닌 LA 까지 찾아와 손을 벌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인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인들은 차라리 각 지역구의 주류 정치인들에게 호소해도 이 보다는 나은 대접을 받지 않을까 싶다.

흔히 한인의 정치력이 몰라보게 신장했다고들 한다. 과연 그런가. 그건 후원금을 주고받는 그들만의 리그에서나 통하는 얘기 아닐까. 양용 씨 사건을 계기로 그 실체가 얼마나 허망한지, 그리고 힘없는 한인의 일상생활과는 얼마나 괴리가 큰지 훤히 드러났다. 정계 진출에 성공한 분들은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 정치인이 됐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진정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며 일하고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되는가.

앞으로 한인 정치인들이 양용 씨 피격 사건에 대해 계속 입조심을 한다면, 나는 혼자서라도 외치고 싶다. 미국에서 한인 정치인은 이제 필요 없다고 말이다. 내 가족이 경찰 폭력에 쓰러지는 판에 수수방관하는 정치인이 무슨 소용인가. 한인들은 그들을 향한 쓸데없는 기대를 접고, 차라리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다수의 한인이 정말 그렇게 외치기 전에,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는 한국계 미국 정치인을 자임하면서 이번 사건에 당당히 발언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삶의 트랙에서

인간적인



정명숙
시인

이다.' 마사 메데이로스의 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의 일부다. 또 D. H. 로렌스는 '인간은 내면 가장 깊은 곳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만 자유롭다. 그 자유에 도달하는 길이 있다. 뛰어드는 것이다'라고 썼다. 나는 이 5월 동안에 나 자신만의 세계에 뛰어든다. 단지 숨을 쉬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살아있음은 눈이 반짝이고 심장이 뛰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표현에 적극적인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은퇴가 아득했을 때는 많은 생각없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매꾸어나갔다. 그러다가 은퇴 생활에 한 발을 넣고 보니 갑자기 내 남은 생애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남아있는 시간을 모르기에

조조해진다.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100세 시대라고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다. 생산능력보다 소비가 많아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세상이 당신을 삶의 가장자리로 밀어내기 전에 지혜와 사랑으로 당신이 삶의 심장부를 넓혀갈 수는 없을까.

한 후배가 AI로 노래를 만들었다며 보내주었다. 그 후배한테 차마 맡을 못 했지만 정말 듣기 고통스러웠다. 감정이 하나도 입입되지 않은 로보트가 부르는 노래 같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후배는 아직도 종이책을 읽느냐고 비아냥거렸다. 난 아직도 종이책이 좋다. 종이책은 눈으로 읽고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할 기회를 준다. 좀 더 인간적이다. 사람 맛이 난다. 젊은이한테는 지식을 배울 수 있으나 노인한테는 지혜와 사랑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당신이 세상을 꼭 껴안으면 삶의 중심부는 넓어질 수밖에 없다. 노인 스스로 삶의 중심부와 가장자리에 선을 그어놓고 자신을 가장자리로 밀어 넣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는 요즘 평행선을 걷고 있다. 일주일에 이틀만 병원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나머지 5일은 완전히 나의 자유 시간으로 즐긴다. 풀타임으로 일할 때와는 달리 기분이 묘하다. 병원에서 시간이 더욱 새롭고 긴장감이 돈다. 죽음의 문턱에서 서성대는 환자와 그의 가족 틈새에서 이들을 보내고 나면 탈진된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그래도 나 스스로 이 일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왜냐하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대 의학을 배우고 또 실천하고 있어 아직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지 않았음을 대견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파트 타임을 결정하고 난 후 실은 두려웠다. 내 생활의 균형이 깨질까, 은근히 걱정도 되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한 지도 벌써 4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많이 익숙해졌고 나름대로 여유 있게 즐기고 있다. 일단 버킷 리스트를 만들었다. 여행을 자주 한다.

'여행하지 않는 사람,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삶의 음악을 듣지 않는 사람/ 자기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트럼프, 주도적 역할 당부” vs “트럼프, 문 근처 오는 것 질색”

(문재인 전 대통령)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대담 형식으로 지난 17일 발간한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 교수는 대통령 선거 때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건 물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을 지냈다. 회고록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남북정상회담이나 한·미 관계 등 외교, 국방, 방위산업, 보훈 분야에서 있었던 주요 사건의 배경과 의미, 뒷얘기 등을 담았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적었다. 집권 2년 차인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며 1년 남짓 짧은 기간이었지만 성과도 있었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은 한국 주도의 정책과, 동남아시아 국가와 외교 관계 확대를 골자로 한 신남방정책을 성과로 꼽기도 했다. 회고록의 제목을 『변방에서 중심으로』로 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는 비록 불발되긴 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12월 10~15일 일정을 서울을 답방해 제주도를 함께 찾아 헬기를 이용해 한라산에 오르는 일정을 검토했다는 ‘소문’을 확인했다. 또 김 위원장과 58차례 친서를 교환했고, 2020년 개성 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연락사무소를 건설하자는 제안을 했었다는 등 그간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을 향한 서운함과 답답함을 반복해서 드러내면서도 북한 당국자들이 공식 문건인 담화 등에서 저급한 표현으로 상대를 자극하는 ‘벼락’은 반드시 고쳐야 할 대목으로 꼽았다.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사료적 의미가 작지 않지만 관련자들이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검증이 필요한 대목도 있다. 의문점을 정리해봤다.

한·미 동상이몽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내게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치프 니고시에이 터(수석 협상 대표)가 돼 달라고 부탁했다.”(47쪽)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이에서 회담을 중재하고,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기억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를 친교 산책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배석자 없이 예정했던 10분을 넘겨 30분 넘게 대화를 나눴다. [중앙포토]

참모들은 문 전 대통령의 역할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2019년 6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 때 문 전 대통령의 동행은 둘러싸고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은 자신의 회고록에 “트럼프는 문재인이 근처에 다가오는 것조차 질색했다”고 썼다.([그 일이 일어난 방], 500쪽) 문 전 대통령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동상이몽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은 “북한에서는 우리가 (판문점 북·미 회동에) 함께 가는 것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고, 오히려 더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내가 가는 걸 꺼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기억했다(334쪽).

“김 위원장은 ‘집무실이 노동당 청사에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출근하고 대부분 지방을 다니기 때문에 없을 때가 많고 보안도 엄격하니 확실히 보안이 지켜지는 이메일로 연락하자’고 했다. 자기가 지방 현장에 가도 노트북을 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였다.”(224쪽)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4월 2일 정부는 정상회담 실무접촉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했고, 시범통화를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이후 정상간 전화통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김 위원장이 집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으니 통화가 안됐다는 해명이다. 그럴거라면 왜 직통전화를 설치했는지 의문이다. 이메일 역

북 비핵화 견인, 평화정착 주장 미국엔 서운함과 답답함 토로 김정은과 58차례 친서 교환 북 주장 대변, 진실공방 불러

시한 차례도 주고 받지 못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이메일 소통 역시 불발됐다는 점에서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위해 마지못해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3차례의 정상회담, 반개 정상회담, 판문점 도보다리 친교 산책 등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민주국가 지도자다. 그와의 대화에서 있었던 얘기도 다양하게 풀어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솔직하게 자기들의 전용기로 갈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다...중국에 의존해 비행기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싱가포르도 자기들의 전용기로는 갈 수 없으니 그런 고충을 (미국에)말해 달라고 했다.”(119쪽)

“장소가 싱가포르로 결정되는 바람에 북한이 중국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은 중국에 신세를 지게 됐다. 그전까지 북한은 중국과 관계가 조금 뜨악했는데, 북한을 다시 중국에 밀착시키는 계기가 됐다.”(247쪽)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발간한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사일 발사에 성공한 터여서 언제든지 추가생산이 가능했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경위 논란

“어려움을 끼친 건 남북 연락 채널 단절이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도 그 기간에 발생했다. 사건 당시 북한에 연락할 길이 없으니 국제상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반응하지 않으면 수신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으니 참 답답했다. 만약 연락망이 가동되고 있었다면 뭔가 노력해볼 수 있었을 텐데, 속수무책이었다.”(348쪽)

어업지대선에 승선해 서해에서 근무 중이던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가 2020년 9월 20일 실종된 다음날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감청을 통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북한이 2020년 6월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통신선을 차단해 남북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통상 이럴 경우 판문점에서 스피커를 통해 북한에 전화 통지문을 전달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전달하곤 했다. 또 당시에도 유엔사는 북한과 통신선을 유지하고 있던 터여서 간접적으로나마 접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회고록의 내용과 관련, 정치권을 비롯해 외교부가 진실공방에 나선 부분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인도를 공식 방문한 뒤 부인 김정숙 여사가 별도로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한 사안을 두고서다. 문 전 대통령은 대(對) 아세안 외교를 강조하며 인도 방문 당시 모디 인도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밝혔고, 공원을 개장할 때 인도 정부의 초청을 받았지만 또다시 방문하기 어려워 고사하자 인도가 문 전 대통령을 대신해 김 여사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첫 단독 외교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대담자인 최 교수는 “대통령 대신 참석해 외교를 한 것으로 외교부에 기록돼 있을 것”(509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회고록과 상반된 설명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도 방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방문 의사를 우리측이 타진하자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으로 인해 당초 책정됐던 2600만원의 예산이 3억 7000만원으로 15배 폭증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공인회계사
Eddie Cho, CPA

- 회계 업무
- 신규사업 등록
- 세무감사 대변
- 세무 보고
- Payroll Service

* Text, Fax, Email 로도
세금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VA Text / Phone : 703-637-2006
7535 Little River Tpke. #325B
Annandale, VA 22003

MD Text / Phone : 410-787-9077
8600 Snowden River Pkwy. #300
Columbia, MD 21045

Fax: 410-787-6686 Email: echo@daoncpas.com, eddiehocpa@gmail.com

독자가 행복 해진다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시설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

결국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모습으로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어제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고작 6개뿐이었다. 그나마 재의결을 실시한 '채 상병 특검법'은 가결 기준(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세월호피해구제법 등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1대 국회는 이렇듯 아무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막판까지 정쟁만 벌이다 빈손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이를 막기 위해 사실상 상임위 가동을 보이듯 하면서 유탄을 맞고 불발된 민생 법안이 수두룩하다. 핵연료 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반도체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 3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조직을 신설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AI기본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관증원법',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로톡법' 등이었다.

이런 법안들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조정이 가능한 범위였기에 의지만 있었다면 이번에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했다. 이제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 종료(29일)와 함께 일괄 폐기되며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처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수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정국에 중대한 변

화라도 발생하면 기약없이 발이 묶일 수도 있다.

민생 법안이 이 지경이 된 것과 관련해 '채 상병 특검법' 저지에만 몰두하면서 법안 처리에 몸을 사린 여당의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을 끌고 가야 할 여당이 오히려 정치적 계산에 얽매어 국회 가동을 중단시켰으니 앞으로 무슨 명분으로 야당에 법안 처리 때 협조해 달라고 설득할 것인가.

특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은 절박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좌파·단체들과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오랫동안 진통을 겪어 왔던 법안이다. 이번에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게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 개혁안도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여당의 소극적 자세로 무산됐다.

21대 국회는 여러 가지 오명의 신기록도 세웠다. 2020년 6월 개원 때부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임대차 3법', 검찰을 무력화하는 '검수완박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북한 정권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대북 전담금지법'은 지난해 위한 결정을 받았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장관·관사·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도 21대 국회가 처음이다. 법안 처리율이 36.6%에 그친 것은 역대 최저 기록이다.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급여, 각종 보조금을 합치면 21대 국회 4년간 운영 비용은 1조2000억원이다. 이런 막대한 국민의 돈을 쓰면서도 이룩한 성과가 과연 뭔가. 상생과 협의는 실종되고 살벌한 정치 공방만 오갔던 기억밖엔 남지 않았다. 이런 막장 국회는 21대로 끝나길 바란다.

특검 부결된 '채 상병 수사', 공수처는 명운 걸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재차 부결됐다. 공은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갔다. 더불어 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정치 공세 성격이 짙은 무리수였다. 관련 의혹이 증폭된 계기는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였다. 민주당은 이런 공수처를 제쳐놓고 특검으로 몰아갔다. 연간 200억원 넘는 예산을 쓰는 공수처를 의석수로 밀어붙여 출범시킨 당사자가 민주당이란 사실을 짐짓 모른 척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김용우·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은 정부·여당과 사건 관련자들의 뜻밖이지 못한 대처 탓이다. 진상 규명의 대상은 지난해 7월 31일 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이후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벌어진 일련의 조치다. 예정됐던 수사단의 브리핑이 취소됐고, 군은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 다시 회소했다. 이 무렵 이전 장관과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대통령실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가 있었다. 이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최근 수사 속도를 내는 공수처는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윤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외에도 추가로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수사는 만만치 않다. 공수처가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을 대질조사하려 하자 김 사령관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방송에서 "대통령이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말하는 등 사태의 본질과 논점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공수처는 명운을 걸고 이 같은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공수처가 국민 보기에 미진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22대 국회에서 추가 특검 수사는 불가피하다. 응답자의 60~70%가 특검 수사에 찬성한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그때 가선 여당도 더는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출범 후 3년 간 국민을 실망하게 한 공수처로선 존재 의미를 입증할 기회다. 대통령실과 군은 추가 특검 수사도 국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공수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밤 10시 대치동, 저출산은 당연하다



송길영 디지털데이터 분석가 글에 "구글의 검색창에 '엄마처럼'을 써넣으면 연관이 있어 '살기 싫다'가 뜬다"라는 문장이 있었다. 정말 그런지 해봤다. 엄마처럼, 네 글자를 입력하니 창에 여러 연관검색어가 떴다. 맨 위에 있는 것이 '엄마처럼 살지 마'였다. 살기 싫다가 살지 마가 된 것은 검색 시차 때문일 수 있다.

내친김에 '부모처럼'을 넣어봤다. 연관어가 딱 하나 났는데, '부모가 처음이라'였다. 그것을 선택하자 부모 노릇하기 힘들다는 새내기 엄마·아빠의 하소연이 잔뜩 있었다. 그다음에는 '아빠처럼'을 자판에 두드렸다. 맨 위 연관검색어가 '아빠처럼 챙겨주는 남자'였다. 아빠처럼 세심히 보살펴주고, 이해하고, 항상 내 편이 돼주는 남자친구를 바란다는 글이다 수였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딸바보'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여성이 많음을 보여줬다.

구글 검색 세 번에 '시대정신'을 읽을 수 있었다. 엄마는 딸이 자신처럼 독박육아, 경력단절, 경제적 압박을 겪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것 자유롭게 하며 살기를 희망하고, 딸들은 적어도 아빠만큼은 가정에 헌신적인 것 같은 남성을 짝으로 찾고 있으며, 젊은 부모는 부담스러운 숙제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교제, 결혼, 출산이 두려운 세상, 21세기 초반의 한국은 이 자화상을 디지털 화석으로 남기고 있다.

"지금의 세대,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이유는 수없이 많겠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 문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서'다." 책 『200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흥택 작가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의 20대에겐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의 3대 특징이 있다고 한다. 현재의 한국 사회에선 자녀 출산이 젊은층의 세계관과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인간의 첫째 본능이 생존이고, 둘째가 재생산이라고 말한다. 생활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경쟁과 투쟁이 치열해지면 생존 본

능이 앞서게 되고, 그 결과로 출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조저출산은 왜 생겼을까?』). 그는 "아이를 낳을 것인가, 내가 살 것인가 가운데 전자를 택하면 출산으로 이어지고, 후자를 우선시하면 출산을 미루게 된다. 압축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우, 물리적인 경쟁뿐 아니라 심리적인 경쟁이 저출산 요인으로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한다.

며칠 전 오후 10시쯤 서울 대치동 네거리에 갔다. 그 동네 주민인 언론계 선배와 은마아파트 상가에서 '치맥'을 했다. 도로 끝 차로는 학원에서 나오는 자녀를 픽업하려고 부모가 몰고 온 차량이 점령하고 있었고, 인도에는 커다란 가방을 메거나 끄는 학생들이 가득했다. 학원가 '피크 타임' 복귀는 오랜만이였다. 그 시간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 분명 대치동 주변일 것

'엄마처럼' 연관검색어 '살지 마' '미친 경쟁' 대물림 기피는 본능 고위직에 필요한 학원가 밤마실

이다. 네거리 모퉁이의 편의점에 들렀는데, 계산대 앞에 줄 선 학생들 때문에 5분가량 머물렀다. 학생들 대화를 들어보니 뭘 좀 먹고 집에 가려는 게 아니었다. 다시 학원으로 가져가 스티디 카페로 향하는 길에 학교 매점 가듯 온 것이었다. 밤 10시에 다시 공부하러 집이 아닌 어딘가로 가야만 하는 학생들, 얼굴에 활기가 없었다.

청년들이 밤에 불을 밝히고 공부하면 나라 장래가 희망적이어야 하는데, 그날 대치동 모습은 절망적이다. 지금의 2030 세대는 학원 뱅뱅이를 지겹게 체험했고, 지금 10대는 그것을 관통 중이다. 부모는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아이는 학원가 쪼름비가 된다. 이를 보고 겪은 젊은이의 출산 망설임, 포기는 당연하다. 저출산을 담당하는 장관과 대통령 비서관이 생긴다고 한다. 출산지원금 1억원 얘기도 계속 된다. '미친 경쟁'이 대폭 줄거나 사라지지 않는 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날 대치동에서 했다. 저출산 정책을 관장하는 분들에게 학원가 밤마실을 권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Bank of Hope 와 함께 하는

43rd 중앙일보 Student Art & Video Contest

학생미술·영상공모전



제43회 학생미술·영상공모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온라인 출품 시스템 (미주 전 지역에서 온라인 출품 가능)
- ✓ 아시안 최대규모 시상 및 장학금 수여 (총 241명 / 총 11,700 불)
- ✓ 미술부문 최대 3 작품까지 출품 가능 (주요상 제외 중복 입상 가능)
- ✓ 영상부문 8학년 이상 (개인, 팀(최대 4인)단위로 참가 가능)

작품 접수

접수기간:
2024년 5월 20일(월) ~ 7월 7일(일)

참가비 안내

\$20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Bank of Hope 고객 50% 할인 /
10인 이상 단체 10% 할인 (중복 할인 없음)



미술 부문

- 참가대상 프리스쿨 ~ 12학년 (현재 학년)
- 작품주제 자유 주제
- 참가부문 유치부 (Preschool ~ kinder)
초등부 저 (1~2 학년)
초등부 고 (3~5 학년)
중등부 (6~8 학년) 고등부 (9~12 학년)
- 작품규격 제한 없으나 기재 필요
(태블릿 드로잉 허용) (3D 조각, 조형물 제외)



영상 부문

- 참가대상 8 학년 ~ 12 학년 (현재 학년)
- 작품주제 희망 (Hope)
- 참가부문 개인, 팀(최대 4 인) 단위 참가 가능
- 작품규격 영상길이
(1~3 분, 16:9 가로비율)

총 시상 241명
시상금 총 만불 이상

시상내역

상 명	부 문	미술부문		영상부문	
		수상인원	시상금	수상팀(전부문)	시상금
대상	Bank of Hope 상	초등 이하	1명 \$1,000	1팀 \$500	
		중등 이상	1명 \$1,000		
1등	Bank of Hope 행장상	각 부문 (1명)	5명 \$300	2팀	\$300
2등	중앙일보 사장상	각 부문(3명) 중고등부(6명)	21명 \$200	5팀	\$200
3등	해피빌리지상	전 부문	70명 \$20	15팀	\$20
4등	가작	전 부문	100명 상장	20팀	상장

*영상부문 인기상 1팀 \$200



세부 정보 및
온라인 참가 신청
artcontest.koreadaily.com

문의:
213-368-3723 (2577)
(중앙일보 교육연구소)

Sponsored by  Bank of Hope

Hosted by  The JoongAng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May 29, 2024 C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중법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용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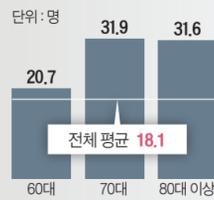
몸 여기저기 괜히 아프다는 부모님... 어찌면 우울증 신호

정정하던 부모님이 활기를 잃고 무기력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자식 된 입장에서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부모님은 본인의 감정이 슬프고 우울해도 주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압박감에 '괜찮다'며 감정을 축소하고 숨긴다. 게다가 노년기 우울증은 신체 증상으로 위장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어딘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뭔가 불편함을 초래하는 통증 양상을 보인다. 서울성모병원 기억장애 클리닉 강동우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노년기 우울증에서는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는 식의 명확하지 않은 통증을 주로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감정 표현이 익숙하지 않거나 감정적 요소를 직접 드러내는 것에 심리적 불편감이 있을수록 신체 불편감으로 많이 표현한다"며 "내외과적인 원인이 없으면 우울·불안일 가능성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우울증 (65세 이상)
13.5%

인구 1000명당 환자 수



주요 원인

만성 질환 | 상실감 | 사회적 고립

증상

모호한 신체 불편감 | 불안·초조·무기력 | 성격 변화

스스로 할 일

- 실행 쉬운 단기 목표 설정하기
- 우선 순위 정해 시급한 일부터
- 중요한 판단은 가족들과 논의
- 혼자 있기보다 사람들 만나기
- 좋아하는 활동 찾아 시간 투자

가족이 도울 일

- 비언어적 양상 살펴 문제 파악
- 시력·청력·구강 등 점검해 대처
- 인터넷 활용 방법 알려드리기
- 자녀·손주 등 주기적으로 방문
- 치료 필요면 적극적으로 설득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가정신건강포털

우울증은 경도인지장애 위험 2배 높아
노년기는 은퇴·사별·이별 등 상실을 겪는 과정이다. 이로 인한 우울·불안은 슬픔·눈물의 형태보다는 무기력과 흥미 상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노년기에 기분 저하가 심각하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청소를 늘하고 요리도 즐기던 부모님이 갑자기 이런 일과를 하지 않거나 친구들과 연락도 잘 안 하는 등 눈에 띄는 변화로 나타난다. 부모님께 주기적으로 전화해 목소리를 살피고 일상생활에 별문제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강 교수는 "비언어적인 양상으로 드러나는 부모님의 우울 증상을 자녀들이 간과하지 않고, 최근 생활상의 스트레스 요인과 이로 인해 부모님이 받는 감정적 여파가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노인 우울증을 놔두면 증상이 만성화하고 인지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준다. 우

부담 줄까봐 감정 숨기는 경우 찾아
심리 불편감, 신체 불편으로 표현

예방법 중 하나가 감각기능 유지
의치·보청기·백내장수술 제때 해야

우울증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위험을 2배 높인다. 강 교수는 "노년기 우울증이 있으면 신경 퇴행성 질환이나 혈관성 뇌 질환의 동반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평가받아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치매 전구증상으로서 감정조절의 어려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부모님의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는 감각기능 유지를 돕는 것이다. 감각기관은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지 말고 의치·보청기를 적극적으로 착용하며 백내장 수술 등을 제때 받아야 우울증 같은 노년기 건강 합병증을 멀리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활동적인 노년(active aging)을 평가하는 요소로 시력·청력과 저작 기능을 꼽는다. 이런 신체 기능 상태가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이다.

시력·청력과 씹는 힘이 약하면 고립

감·우울감이 깊어진다. 잘 안 들리거나 안 보여서 부끄러워 사람들을 만나기가 꺼려진다고 하는 노인이 많다.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남과의 대화가 어려워져 소외되기 쉽다. 치아가 없으면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져 위축된다. 또 씹는 힘이 약해져 식사가 어렵고 영양은 부실해진다. 시력·청력·구강 상태를 검사받고 필요하면 보청기·돋보기·틀니·임플란트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

노인은 바깥으로 나와야 고독으로 인한 우울을 예방한다. 집에서 혼자 밥 먹기보다 집 앞 경로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게 좋다. 평소 밥을 부실하게 먹고 앉지만 있는 노인도 경로당에서는 대화하며 놀고 다양한 반찬을 먹으며 끼니를 쫓는다.

이민영 기자

▶ 4면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초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초 앞 7700 건물 6층**

생리 주기 세 번 이상 건너뛰고, 끝나도 통증 계속되면 이상 신호

월경으로 점검하는 여성 건강 월경(생리)은 달마다 반복되는 여성의 생리 현상이다. 평균 11~14세에 초경을 시작해 50세 전후까지 40년 내의 동안 이어진다. 그사이 여성은 임신·출산을 하면서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기도 한다. 월경은 주기와 양, 통증 정도에 따라 여성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가능자 역할을 한다. 세계 월경의 날(5월 28일)을 맞아 월경 양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여성 건강 문제를 정리했다.

김선영 기자

가임기 여성은 자궁 양측에 있는 난소에서 번갈아 가면서 난포들이 집단을 형성하고 성장해 성숙 난포를 만든다. 성숙한 우성 난포가 나팔관 내로 배란되고 수정란이 안정되게 착상할 수 있도록 자궁내막을 준비한다. 그러나 임신이 안 되면 수정란 착상을 위해 준비된 자궁내막이 더는 유지되지 않고 탈락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이것이 생리다. 임신 기간엔 당연히 착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월경을 하지 않는다.

여성의 일반적인 월경 주기는 21~35일, 기간은 2~6일이다. 월경 주기는 뇌에 있는 시상하부·뇌하수체와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조절된다. 특히 심한 운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영양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무월경이 오래되면 배란이 되지 않아 불임을 초래할 수 있고 여성호르몬의 감소로 골다공증·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2차 성징 없이 13세까지 초경이 없는 경우 ▶2차 성징은 시작됐으나 15세까지 초경이 없는 경우 ▶월경을 하던 여성이 3번 이상 월경 주기를 건너뛴 경우 ▶월경을 하던 여성이 6개월 이상 월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산부인과를 찾아 진료를 받아 봐야 한다.

월경량 갑자기 늘면 자궁 질환 위험 월경량이 많아지거나 적어져도 문제일 수 있다. 하루에 사용하는 생리대 개수가 3~5개 정도를 정상 범위로 본다. 가임기 여성에서 갑자기 월경량이 많아진다면 자궁내막용종·자궁섬근증·자궁평활근종·자궁내막증식증 등 자궁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월경량이 갑자기 줄어든다면 나이에 따른 신체 변화나 진통제·스테로이드제 등 약물 복용에 따른 영향, 폐경의 가능성을 점검해 봐야 한다.

통증 양상도 주요 관찰 대상이다. 다른 특별한 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주기적인 통증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골반 장기의 이상 조건이 없는 일차성 월경통으로 월경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며 몇 시간 또는 며칠간 지속한다. 나이가 들면서 차츰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출산 후 약 70%에서 좋아지거나 없어진다.

다만 자궁·난소에 문제가 없더라도 생리 기간에 자궁내막에서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자궁 근육을 수축시킴으로써 근육 조직에 산소 공급이 차단돼 경련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NSAIDs)를 2~3일 복용하는 것이 좋다. 기대만큼 통증 완화 효과를 얻지 못한 여성은 복합 경구 피임약이나 자궁 내 장치 치료가 도움될 수 있다.



문제는 자궁·골반의 병이 원인인 이차성 월경통이다. 혹이나 골반염, 자궁근종, 자궁내막증이 대표적이다. ▶20세 이후에 월경통이 발생하거나 최근에 심해진 경우 ▶월경이 시작되기 1~2주 전부터 통증이 있고 끝난 이후에도 지속하는 경우 ▶진통제를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월경과 다와 동반해 통증이 발생할 경우 이차성 월경통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도록 한다.

폐경 이행기엔 식이·운동 요법 필수

보통 40세가 넘으면 난소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해 월경 주기가 짧아진다. 폐경이 다가올수록 월경은 더욱 불규칙해져 건너뛰기도 하고 배란이 더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폐경 이행기 기간은 보통 2~8년이다. 여성호르몬은 기초대사량을 높여 비만을 막아주고 혈관을 보호하며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시기엔 건강의 방패 격인 여성호르몬 분비가 줄면서 이전에 없던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건강관리 계획을 새로이 세워야 한다.

이때 몸속에서 대부분 지방으로 전환되는 당분 섭취를 줄이고 기초대사율을 저하에 따른 근육량 감소를 막고자 단백질 섭취를 늘린다. 지방 분해와 근육량 증가를 위해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며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정신적인 여유를 찾는다. 폐경 후엔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호르몬 요법을 시도한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골다공증 예방, 폐경 후 살찌는 증상을 예방하는 이점이 있다.

.....
 도움말=박소연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최세경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

전문의 칼럼 김경훈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호흡 곤란·기침, 생명까지 위협하는 ‘간질성 폐 질환’

암은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다. 낮은 생존율 때문이다. 간질성 폐 질환은 암만큼이나 위험한 질병으로 통한다. 간질성 폐 질환의 대표 질환인 특발성 폐섬유증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약 40%, 10년 생존율은 15%에 불과하다.

간질성 폐 질환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폐포(alveolus)와 폐포 벽을 지지하는 구조물, 즉 간질(間質·interstitium)에 이상이 생겨 호흡곤란, 기침 등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폐간질에 염증이나 섬유화가 일어나



면서 기능이 저하되는데, 간질 손상으로 발생하는 2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질환을 포함한다. 폐가 섬유화 등으로 악화하면서 점차 호흡이 짧아지고 결국 생명에 지장을 주게 된다.

간질성 폐 질환의 상당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이다. 다만 유전적 소인에 흡연이나 분진, 위·식도 역류 질환, 감염 등 다양한 인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위험 인자에 의해 발생한 폐의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섬유세포가 증식해 폐의 섬유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질환은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특발성 간질성 폐 질환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국내 간질성 폐 질환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간질성 폐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5만5075명으로 2013년 2만946명 대비 10년간 163% 늘었다.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지속해서 악화하는 호흡곤란과 마른기침이다. 또 천명음(쌩쌩거림)이나 비특이적 흉통을 보이기도 하고 간혹 객혈을 동반하기도 한다.

증상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환자마다 다른 양상과 속도로 진행된다.

진단은 쉽지 않다. 질환군이 광범위 다양하고 많은 질병이 포함될 데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도 많은 탓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폐 기능 검사, 고해상도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가 필수다. 또 기관지경을 통한 기관지폐포세척검사, 폐 조직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자가면역 질환 동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간질성 폐 질환의 경우 치료에 잘 반응하는 질환이 있는 반면, 치료

에 반응하지 않는 질환도 많은 난치성 질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질환에 따라 다양한 치료가 적용된다. 다만 최근 약제 개발과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되면 항섬유화제를, 비특이적 간질성 폐 질환은 스테로이드 같은 항염증제와 면역억제제가 처방되고 있다. 간질성 폐 질환은 얼마나 정확히 진단했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 건강검진에서 CT를 시행한 후 증상이 없는 초기 상태로 발견되기도 한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투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눈 자주 비비면 시력 떨어져... 폐경기 여성은 골밀도 검사 수시로 받아야

건강 위협하는 신체 구멍 질환 망막열공, 기흉, 골다공증.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신체 정상 조직에 구멍이 생겨 증상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신체에도 다양한 이유로 '구멍'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뽕 뚫려 있는 빈자리 사이로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쉽게 채워진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비교적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신체 구멍 질환과 효과적인 예방법을 알아본다.

신영경 기자



망막열공 정의 망막이 찢어져 구멍이 생긴 상태. 망막의 전체 층이 손상되는 질환
특징 고도근시자 고위험군. 비문증·광시증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고 망막박리 위험
예방법 눈 비비는 행동 삼가고 과격한 운동 시 보안경 착용



기흉 정의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고 흉막강 내에 공기나 가스가 고이게 되는 질환
특징 10~20세 젊고 마른 남성에게서 자주 발생, 재발률 높음
예방법 특별한 예방법은 없으나 금연이 원칙, 유산소 운동 권장



골다공증 정의 뼈의 강도가 약해져 구멍이 생기고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
특징 여성호르몬이 급감하는 폐경기 여성 요주의 대상
예방법 칼슘·비타민D 등 충분한 영양 섭취와 유산소, 근력 운동 권장

시력 도둑 망막박리 부르는 망막열공

망막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막이다. 눈에서 카메라의 필름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감지하고 시신경을 통해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식이다. 눈의 가장 안쪽에서 100만 개가 넘는 시신경 세포로 촘촘하게 자리 잡은 정교한 조직이다. 특히 망막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다양한 이유로 망막이 찢어져 구멍이 난 상태를 망막열공이라고 부른다. 우리 눈 내부에는 젤리 같은 투명한 유리체가 채워져 있다. 그런데 고도근시나 노화, 외상 등으로 유리체가 액화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열공이 발생한다.

망막열공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 일단 망막열공이 심해지면 망막박리로 이어질 수 있다. 망막박리는 망막의 일부 또는 전체가 안구 벽으로부터 떨어지는 질환이다. 망막 분리 상태가 지속할 경우 망막에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기 어려워진다. 시력이 저하되는 것은 기본이고, 자칫하면 앞을 못 보게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망막 질환의 전조 증상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망막열공이 생기면 눈앞에 먼지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듯한 비문증이 흔히 나타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시선을 돌릴 때마다 검은 선이나 날벌레가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게 특징이다. 그러면서 빛이 번쩍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광시증, 커튼이 쳐져 가려진 듯한 시야 장애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증상으로 발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방법은 간단하다. 평소 생활 습관에서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특히 고도근시자일 경우 운동을 할 때 보안경을 착용해 눈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는 행동도 망막열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머리카락이 눈 쪽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충격은 망막박리 위험성을 높인다. 권투나 축구, 다이빙 같은 운동은 피하는 편이 이롭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해 검진을 받는 것이다. 고도근시자처럼 망막열공이 잘 생기는 눈은 다른 쪽 눈 부위에도 새로운 망막열공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 안 된다.

마르고 젊은 남자 '기흉' 요주의

폐는 풍선과 같은 장기다. 항상 공기를 품고 수축과 팽창을 반복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작은 풍선과 같은 폐에 생긴 기포(공기주머니)가 터지기도 한다. 쉽게 말해 폐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기흉은 이 구멍으로 폐 안에 있는 공기가 새 나가면서 흉강 내에 공기가 차는 질환을 말한다. 그러면 폐 외부에 기압이 생기면서 폐가 점차 쪼그라든다.

기흉은 크게 일차성 기흉과 이차성 기흉으로 나뉜다. 각각 원인이 다르다. 일차성 기흉은 10~20대 젊은 남자에게서 자주 발병한다. 이런 환자들은 보통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을 가진 경우가 많다. 흡연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폐에 특별한 질환 없이 생겨 '자연 기흉'으로도 불린다. 반면에 이차성 기흉은 만성 폐쇄성 폐 질환, 폐기종 등 기존 폐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

에게 흔히 발생한다. 60~70대 높은 연령대에서 주로 나타난다.

기흉이 발생하면 흔히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흉통(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다. 흉통은 가슴 안쪽이 빠근해지는 식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운동과 상관없이 생기기도 한다. 더 유의해야 할 증상은 호흡곤란이다. 대부분 증상이 가벼운 상태에 그치지만, 이차성 기흉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호흡곤란뿐 아니라 심하면 심장까지 압박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기흉의 경우 안타깝게도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다만 흡연을 했을 때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금연을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흡연자는 20배 이상 기흉 재발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기흉 재발을 막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의심 증상이 감지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전문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뼈에 구멍 송송 뚫리는 '골다공증'

신체 골격을 이루는 뼈는 끊임없이 흡수되고 생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오래된 뼈 조직을 부수고 새로 만들어진 뼈가 기존 자리를 대체하는 식이다. 이 과정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뼈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수지는 뼈가 보충하는 뼈보다 많아져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다. 골밀도, 즉 뼈의 단단함이 떨어지는 것이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적·질적 저하로 강도가 약해진 상태를 말한다. 이를 그대로 뱉속에 구멍이 많이 난다는 뜻이다. 정확히 말하면 뼈의 밀도가 낮아져 구멍처럼 빈 공간이 생겨 보이는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뼈에 구멍이 생긴 것만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병을 알아채기 어렵다. 하지만 골밀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다가 뼈가 부러지기도 한다.

특히 40~50대는 본격적으로 골밀도가 감소하는 시기다. 폐경기 여성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폐경 후엔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골밀도 감소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경기 여성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틈틈이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이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뼈 건강관리는 연령대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핵심은 젊을 때 최대 골량을 형성해 놓는 것이다. 골다공증은 방어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30대 초반, 여자는 30대 중반까지 뼈양이 채워진다. 이때까진 충분한 영양섭취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 뼈 건강에도 움되는 칼슘과 비타민D를 섭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중년기에 접어들기 전까진 특정 영양소에 집중하기보다 모든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식생활을 실천하는 편이 더 낫다. 카페인과 가공식품은 멀리하고, 음식은 가급적 짜지 않게 먹는다. 또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 힘쓴다.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 410-480-0083
Ellicott City, MD 21042

혁신적 비만 치료 시스템, 인도네시아서 인기 폭폭 'K-지방 흡입술'

인터뷰 김남철 365mc 대표이사 한국의 혁신적인 비만 치료 시스템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지방 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는 글로벌 시장 첫 진출인 인도네시아 1호점 개원(2023년 7월)에 이어 수도인 자카르타 중심에 2호점을 열고, 태국 현지 개원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365mc가 개발한 체형 교정 시술 '람스'(LAMS, 국소 마취하 최소침습 지방 흡입 주사)에 높은 수요가 확인된 것이다. 간편함을 앞세운 램스는 1.5~2mm의 미세한 관을 통해 지방세포를 제거한다. 365mc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지방 흡입을, KAIST와는 초고효율 지방 흡입 캐놀러를 개발하며 비만 치료의 지평을 확대해 왔다. 글로벌 브랜드로서 입지를 다지는 김남철 365mc 대표이사를 만나 'K-지방흡입'의 기술력과 발전 방향을 들었다. 이민영 기자

-세계 진출을 왜 결심했나.
 “현재 글로벌 헬스케어 트렌드는 최첨단 산업과의 융·복합이다. 데이터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인공지능과 접목돼 연구개발되고 기술이 나온다. 미래는 데이터 싸움이라고 하는데, 특히 비만 치료는 데이터 친화적인 분야다. 체중·칼로리·사이즈 등 모든 요소가 숫자에서 시작해 숫자로 끝난다. 비만은 전신 질환과도 연결된다. 365mc는 2003년부터 인체 지방이라는 좁고 특이적인 분야에 집중해 왔다. 축적된 데이터의 활용을 고도화하면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헬스케어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봤다. 혁신에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 데이터양이 많아질수록 알고리즘은 정교해진다. 앞으로 인도네시아·태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싱가포르·두바이 등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모이면 시너지는 더 클 것이다. 글로벌 진출로 공격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를 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



김남철 365mc 대표이사는 “글로벌 진출을 통해 공격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함으로써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인성욱 객원기자

“비만 치료는 주시술 하나로 끝이 아니라 이후 관리를 통해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까지 이뤄져야 완성된다. 그 래야 치료 효과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유지할 수 있다. 그러려면 스마트 기술이 효과적이다. 먹은 음식을 촬영하면 식이요법과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걷기 실천에 도움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행동 수정과 습관 관리에 도움을 준다. 지방 흡입·다이어트 심리 연구, 행동 수정 요법의 기본인 효율적 식단일기 시스템 등 연구에 매진해 온 이이다. 전인적 치료를 적용해 근본적으로 치료 효과를 높여야 했다.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진 핵심 요소도 시스템이었다. 비만 치료에 꼭 필요한 기술·수술에 더해 영양학적 접근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은 거의 없었다. 이런 방향으로 의료의 질을 높여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데이터를 치료에 접목한 사례가 있나.
 “대표적인 것이 365mc의 인공지능 지방흡입 시스템(M.A.I.L)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 개발했다. 의료진의 손 동작을 데이터화해 수술 후 환자의 불편감과 멍의 정도 등을 예측함으로써 빠르게 적절한 처치를 한다. 집도의 역시 피드백을 받으면 수술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지방 흡입 수술 효과를 예측하는 시스템도 있다. 그동안 극소수에서 지방 흡입 효과가 유의미하게 적은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들의 특징을 추출해 예측에 활용한다. 환자의 체성분과 지방

층 초음파검사 결과 등을 분석해 지방 흡입 효과가 크지 않을 사람들에겐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지방 흡입을 한 뒤에야 효과를 알 수 있었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과와 태국 진출 배경은 뭔가.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시장이 크고 성장성이 높다. 동시에 한류에 우호적이며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좋다. 현지의 좋은 파트너와 협업이 성사돼 첫 번째로 진출

했다. 인도네시아 1호점은 지난해 7월 개원했는데, 1년이 채 안 돼 매출이 12배 증가했다. 1호점은 물리적으로 포화 수준이라 공간을 확장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중심지에 2호점을 준비 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기술이전과 교육으로 현지 의료진이 램스를 1만 명 넘게 시행했다. 이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의료진 숙련도가 높은 수준에 올라온 것으로 평가된다. 조종사의 숙련도를 비행시간으로 따지듯 램스의 숙련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병

“K-지방 흡입의 발전 가능성은 어떤가.
 “해외 의료진과 활발히 교류하며 학술·연구에서 데이터를 쌓다 보니 진출 함으로써 배우는 게 많다. 국가별 파트너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혁신적인 결과물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안에서만 이뤄지던 혁신과 달리 전 세계 곳곳에서의 혁신이 합쳐져 경쟁하고 교류하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데이터가 축적되고 기술이 결합하면 현재의 지방 흡입도 기술의 힘을 입어 더 안전해질 것이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 브랜드가 세계로 뻗어 나가 의료계 BTS가 되겠다는 게 목표다. 무한 경쟁의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면 '우울증'에서 이어집니다

밖에 나와 사람들을 자주 보고 관계를 형성해야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뇌가 건강해진다. 경험을 살려 봉사 단체에 참가하면 나이 들어가며 겪는 허전함도 완화할 수 있다.
 집에서 주로 지내야 한다면 일과를 정하는 게 도움된다. 특정 시간엔 정해진 활동을 하도록 일과표를 만드는 것이다. 단조로운 생활 패턴으로 활동량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 자체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 지내는 공간이 한정돼 있어도 요리, 가족·

친구와의 통화, 스트레칭하기와 같은 식으로 해야 할 일을 정해놓고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면 된다. 부모님에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콘텐츠 활용법을 알려드리는 방법도 좋다. 부모님이 관심 있는 분야나 새로운 주제를 온라인을 통해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활용하면 된다. 주기적으로 자녀·손주를 만나는 것 또한 부모님이 기분을 유지하는 방법의 하나다.
 부모님의 우울감이 깊어 치료가 필요해 보일 땐 전문가를 만나 적극적인

으로 상담받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약물치료 외에 현재 본인이 인지적으로 상황 왜곡을 하는 것은 아닌지 현실을 검증하고 정돈해주는 면담 치료 등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 환자 자신의 대처 능력을 재확인시키고 보완해주는 치료는 우울감과 걱정 완화에도 도움된다. 강동우 교수는 “현재의 우울감이 지속하면 증상이 심화하는 경우가 많고, 내외과적 질환도 더 나빠지는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며 “특히 노년기 우울증은 뇌의

기능적·구조적 변화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므로 현 상태를 적절히 평가해 조치해야 더 심한 증상으로 진행되는 걸 예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도움된다”고 조언했다.
경로당·복지관·노인대학 활동도 도움
 우울감에 빠진 노인은 자신의 감정을 가족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다양한 감정 중에서도 분노·슬픔 같은 증상을 속으로만 삭이지 않아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서툰 사람일수록 두통·근육통·소화불량 같은 증상

이 잘 나타난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다.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다. 혼자 힘든 감정을 끌어안고 지내다가 우울 증상이 심해진 뒤에야 가족이 알게 되면 그것이 외려 더 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주변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한다는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다. 비슷한 상황의 동년배나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경로당·복지관, 노인 대학 같은 시설은 동년배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다. 이민영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small>Cataract Laser Surgery</small>	안구 건조증 치료 <small>Dry Eyes Therapy</small>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small>Glaucoma Laser and Surgery</small>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small>Diabetes Laser and Injection</small>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small>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small>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small>Eyelid Surgery (Blepharoplasty)</small>
정기적인 눈 검사 <small>Routine Eye Exam</small>	☀️중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티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대표 정희수
703.477.3114

부동산 최고의 권위!

현대부동산

주책 매매(주거용, 투자용)
상업용 부동산 매매
법원 경매(Auction)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하이웨이 진행함

★ 수많은 부동산 Seminar 개최

Principle Broker 세리린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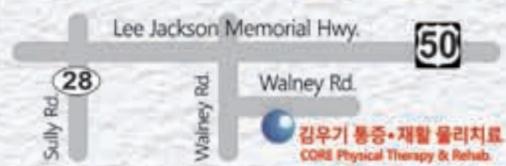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한방 칼럼

20년 전에는 나이가 시골에 100세 넘은 분들을 비롯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환자 찾기가 어려웠다.

최근에는 인지장애 혹은 치매로 진단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신경내과 선생님들이 이야기한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0-30년 뒤에는 약 3배 정도 증가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두뇌는 전체의 70-80%가 물이고, 물기를 빼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방이다.

지방간은 함유량이 5%만 넘어도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두뇌는 대단한 지방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그 구성을 보면 절반인 50%가 오메가3

지방산이고, 건조 중량의 25%가 콜레스테롤이며, 20-25%가 인지질이다.

치매 환자가 급증한 것은 그동안 지방을 적게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여기고, 이를 정부시책과 발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실천한 것이 큰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짐작된다. 지방을 기피하고, 콜레스테롤이 필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원수처럼 대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지방이 혈관을 막히게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저지방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저지방 전성시대가 되면서, 결국

치매 예방 (3)



권진열
헤민한의원 원장

지방을 지나치게 줄일 경우 결국 당뇨 유병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WHO도 포화지방을 10%, 미국 심장

학회는 5-6%를 권장했는데, 결국 채식주의 비건이 되도록 권장된 것이다.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그동안 매우 많이 늘어났다.

지금 저지방 전성 시대가 되니까, 좋은 지방은 놔두고 지방이 별로 없는 밥, 빵, 면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마음대로 먹고 있다.

이렇게 되면 평균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치매 위험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육(밥, 빵, 면 줄이고 콩고 멀리 하라)란 책자도 나와 있다. 2024년 3월의 최근 기사에 의하면 생

쥐에게 당질 제한식을 7개월 시켰더니, 시냅스 감소가 증가했다.

시냅스는 신경과 신경의 연결 부위인데, 그 연결 기능이 증가했다는 뜻이 된다. 연결 기능이 끊어지면 신경 퇴행 질환인 치매로 될 수 있다. 전선이 끊어진다는 뜻이다. 밥 빵 면을 열심히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고, 시냅스의 기능이 나빠진다.

결국 치매 위험도가 커진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행한 인간의 연구에서 당질 제한식을 하니,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좀 더 먹으면, 인지기능이 대폭 줄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대폭 향상되었다. > 문의 : 301-922-9239

건강 칼럼

당뇨병, 생활 습관 개선이 해법

지난 20년간 미국의 당뇨 환자는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당뇨병 환자 수는 3700만 명이 넘는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 11.3%에 달한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2020년 한국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는 약 600만명으로,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당뇨병에는 제1형과 제2형 두 가지가 있다. 제1형은 어린 나이에 발병하기 쉬우며 체내에서 인슐린이 거의 생산되지 않아 발병한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생긴다. 환자 중 약 90-95%가 성인이 되어 진단받는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

당뇨병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심한 피로감, 갈증으로 인해 물을 많이 마시거나, 소변을 자주 보고, 많이 먹지만 체중이 감소한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당뇨병 자체의 증상보다 '심장마비, 콩팥 장애, 뇌졸중, 실명' 등 각종 합병증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당뇨병은 잘못된 식습관부터 유전적, 환경적, 문화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당뇨병의 발병 양상이 소득 수준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 이는 저소득층이 저렴한 칼로리나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을 주로 섭취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한국의 당뇨병 환자 수도 1980년 이후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과거에 비해 한국인의 육류 소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당뇨병 환자를 인종별로 보면 아메리칸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다. 현대사회에서 비만이 늘어 당뇨 환자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프랭크 최
가정의학과 전문의
LA 할리우드 차병원

최근 미국에서 큰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 소아 비만이다. 체중은 어렸을 때 교정하는 것이 중요인데, 이때 관리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 음식습관 조절은 더 어려울 뿐 아니라 당뇨병의 위험도 두 배나 높아진다.

당뇨병은 단면적으로 접근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생활습관을 개선해 신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음식을 계속 먹고 싶은 욕구와 심리적 문제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뇨병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적절한 운동과 식이조절'이다. 음식은 기름지거나 단 음식, 쌀, 빵, 육류 등을 줄이고 야채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외식보다는 집밥을 먹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

또한 미국 당뇨병 학회는 최소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4~5회의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이때 운동은 30분의 가벼운 산책이 아닌, 조깅이나 러닝 등 유산소 운동을 말한다. 많은 환자가 약물로도 당뇨를 관리하고 있지만, 약의 종류와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오래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음식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

당뇨병 검사는 혈액을 채혈해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CDC는 35세부터 당화혈색소 검사를 할 것을 추천하며, 큰 이상이 없다면 일년에 한 번도 무방하다. 당뇨 환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진행해야 한다.

정신 건강

외상 방치하면 스트레스 장애 발생

이번 칼럼에서는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Trauma and Stressor-Related Disorders)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개선되면서 최근에는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곤 한다. 트라우마, 외상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오는 강력한 자극, 충격으로 나타나는 증상, 현상이다. 외상은 사람에 따라 강도, 지속기간이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 지속하면 정신건강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외상에 기인한 정신의학적 장애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적응 장애(Adjustment Disorder), 집단성 트라우마(Collective Trauma, 정신의학적 진단명은 아니다) 등이 있다. 이들 장애 모두 극심한 외상에 노출된 후 심각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 하위유형에는 이들 외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 ASD)가 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실제적이고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성폭행에 직접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거나 가족, 친척, 친구가 겪은 것을 알게 됐을 때 나타나게 된다. 외상적 사건은 갑작스럽고 폭력적이며 비극적, 비정상적인 것으로 교통사고, 폭행, 학대, 지진 같은 자연재해, 재앙, 산업재해, 전쟁 등이 포함된다.

증상은 침습(질병이나 발작의 시작) 부정적 기분 ▶해리(연속적인 의식의 단절) ▶회피 ▶각성의 5개 범주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반복적, 침습적(갑자기 침범해 공격)으로 찾아오는 사건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 ▶사건에 대한 반복적



문상웅
심리상담가(LCSW)
이웃케어클리닉

인 악몽 ▶사건이 마치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착각 ▶이에 따른 현실감각 및 정서 반응 마비, 해리성 반응 ▶사건을 상징하거나 비슷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현저한 생리 반응이 있다. 또 계속해서 무기력, 무능력한 기분이 들고 ▶본인을 다른 사람 시각에서 관찰하거나 현실을 혼란스러워하는 기분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기 어렵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해리성 기억상실을 겪게 된다.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억, 생각, 감정을 회피하려 하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 생각,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장소, 대화, 상황을 회피하려는 증상도 나타난다. ▶잠에 들거나 잠을 제대로 자기 힘들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과장되게 놀라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과민하게 행동하며 공격적인 반응, 분노 폭발을 하는 증상이 있다.

이들 증상 중 9가지 이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외상 노출 후 3일에서 1개월까지 지속하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는 기준이 된다. 증상이 3일 안에 사라진다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지속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PTSD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헤민한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9%	0.9%	13.9%	42.9%	2.3%	0.9%
매우물음	당뇨	노화사망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적,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피릿피릿
바닥 못누움

영치
포리뼈
좌골신경통

Sciatica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toes 발목
오래된 것 쉽게 해결됨

plantar aches

뒤꿈치

발바닥 통증

힘이 없어 집지 못함

방아쇠

피지 않음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러짐 힘들다

뒤로 퍼기 힘들다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헤민한의원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주소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도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JTBC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불면증 엄마, 우울증 아들, 비만 딸
현대인 병으로 초능력 잃은 복씨네

행복한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을 갖췄지만, 우울증에 걸렸다. 하늘을 날 수 있지만, 비만으로 몸이 무겁다. 상대의 눈을 보면 속마음을 읽는 재주가 있으나, 대인기피증이라 사람이 싫다. 100% 정확한 예지몽을 꿀 수 있으나, 불면증에 시달린다.

JTBC 주말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에 등장하는 초능력 가족의 처지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다. 예지몽으로 투자 정보를 얻어 부를 축적해 왔지만, 현대인의 흔한 고질병에 걸린 초능력자들은 자괴감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들의 능력을 탐하는 건 사기꾼 가족이다.

드라마는 제목 그대로 영웅 서사가 아니다. 극중 복씨 가족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초능력을 개인의 부와 즐거움을 위해 활용해 왔다. 예지몽으로 돈을 모은 엄마 복만홍(고두심)을 중심으로 한 모계 가족이다. 만홍의 예지몽은 딸 복동희(수현)가 살이 찌고, 아들 복귀주(장기용)가 우울증에 빠진 뒤 흐릿해진다. 집안 걱정으로 예민해진 만홍이 기밀 곳은 마사지뿐. 귀주와의 사기 결혼을 노리는 도다해(천우희)는 마사지숍에서 만홍이 마시는 차에 몰래 수면제를 타서 재우며 초능력 가족의 울타리에 발을 들인다.

현대인의 질병으로 초능력을 잃은 복씨네와 능력껏 실수를 행기는 사기꾼 가족의 대비가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의 재미 포인트다. JTBC 'SKY 캐슬'을 연출한 조현탁 감독과 tvN '연애 말고 결혼'의 주희미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경성 크리처'(넷플릭스), '남만닥터 김사부'(SBS) 등을 쓴 강은경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했다. 정재형 음악감독은 판타지 로맨스의 묘하고 설레는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조현탁 감독은 앞선 제작발표회



**병든 초능력 가족과 사기꾼
불행한 삶 바꿀 수 있을까**



1 복씨네 장남 귀주(장기용)는 사기꾼 도다해(천우희)를 만난 후 잃어버렸던 시간여행 초능력을 되찾는다. 2 엄마 복만홍(고두심)은 예지몽을 꾸며, 3 누나 복동희(수현)는 비행 능력을 지녔다. 4 사촌기 딸 복이나(박소이)는 독심술 능력을 안경으로 숨겼다. [사진 JTBC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히어로물이다. 초능력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이 코믹하면서도 짠하다"면서 "판타지는 현실처럼, 현실은 판타지처럼 보여주고 했다"고 설명했다.

드라마는 초능력자와 사기꾼이 서로를 통해 위로받는 '쌍방 구원' 서사다. 귀주와 다해가 서로의 구원자인 것처럼, 비만인 복동희 또한 헬스 트레이너 그레이스에 자극을 받아 살을 빼는 장면도 나온다. 그레이스는 복동희를 이용하다가도, 그의 당당함과 높은 자존감을 부러워한다.

최근 방송한 7, 8화에선 귀주가 다해와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다해에 호감이 생긴 귀주는 과거 다해가 외로웠던 시간들로 불쑥 찾아가 위로를 건네고, 현재의 다해 곁에서 찜질방 일손도 도왔다. 특히 다해가 학창시절 화재사고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귀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겼다. 이전까지 귀주는 선배 소방관이 화재로 사망한 시간에 집착해 과거에만 살다가 아내까지 사고로 잃고 절망에 빠져있었다. 다해는 선배 소방관이 출동했던 화재사고에서 살아남은 아이다. 귀주의 딸인 복이나(박소이) 또한 복씨 가족들보다도 다해를 깊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귀주를 사랑하게 된 다해는 다가오는 귀주를 밀어내려한다. 사기를 업으로 삼는 자신의 불행한 삶에 귀주까지 끌어들이는 순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래에서 온 귀주가 "나 붙잡아요"라며 등을 떠밀면서, 현재의 귀주에게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귀주가 불행한 과거로부터 자신과 다해를 구하며 현재의 행복을 찾아간다면, 마사지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다해는 귀주를 통해 현재의 감정을 표출하는 돌파구를 얻은 것이다.

귀주와 다해의 로맨스가 짙어지면서 시청률은 상승세다. 8화(26일 방송)는 자체 최고 시청률인 전국 4.2% 수도권 5.0%(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황지영 기자**

"사람이 안 보여야 디테일 보인다"... 50년간 빈 건물 찍는 사진작가

한국서 개인전 연 칸디다 회퍼
도서관·미술관 등 문화공간 찍어
조명·후보정·인물 없는 '3무 원칙'
"난 건축 아닌 공간의 초상 찍는다"

"사람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게 내 의도다. 안 그러면 사람이 부각되니까. 그럼에도 공간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 때로 사람이 들어가기도 한다.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 싶으면 사람 없는 시간대를 골라 다시 찍는다."

2021년 스위스의 장크트갈렌 수도원 부속 도서관과 베를린 신국립미술관, 2022년 베를린 코미세 오페라. 50년 가까이 빈 건물에서 셔터를 누른 독일 사진작가 칸디다 회퍼(80)다. 그의 사진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이 주인공이다. "나는 건축 사진가가 아니라 공간의 초상을 찍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다. 정중앙에서 좌우대칭으로 담아낸



칸디다 회퍼가 담은 공간의 초상. 왼쪽부터 '베를린 코미세 오페라' 2022, '베를린 신국립미술관' 2021. [사진 국제갤러리]

건물 내부는 초점이 맞지 않은 부분이 없어 구석 구석 눈길을 끈다.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 K2에서 열리는 전시 'Renaissance'(재생)에서 만난 그의 작품 14점도 그렇다.

회퍼의 사진에는 세 가지가 없다. 첫째, 인위적 조명을 쓰지 않는다. 자연광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지는 건물 내부에 관심이 많다. 둘째, 후보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 촬영할 때 느릿한 시선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담아낸다. 셋째, 인물이 없다. 자기 작업에 사람이 동원하는 것도, 촬영하러 간 공간에서 바빠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도 불편해한다. 오래된 문화 공간을 찍은 그의 사진에서는 사람의 부재가 오히려 오랜 세월 그곳을 드나들었을 사람들의 존재를 증명한다. 회퍼는 30대 초반 뒤셀도르프 아카데미



칸디다 회퍼

미에서 베르트 베히와 힐라 베히에게 사진을 배웠다. 사진이 막 예술학교의 정식 학과가 되기 시작할 무렵이다. 베히 부부는 1960년대 독일의 공장 건물을 촬영해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며 '유형학적 사진'이라는 흐름을 형성했다. 회퍼는 토마스 슈트루스(70), 토마스 루프(66) 등과 베히 학파 1세대를 이뤘다.

"인내와 끈기를 중시한다"는 회퍼는 50년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이 정한 원칙을 고수하며 고색창연한 건물을 담아왔다. 촬영 장소는 대부분 유럽. 익숙지 않은 공간은 좀처럼 담지 않는다. "이국적인 것을 착취하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제목엔 장소와 촬영 연도만 간결하게 담는다. 전시장에서 만난 그는 말도 경제적으로 했다. "카메라를 놓고, 렌즈를 통해 대상을 보고, 찍는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다 담긴다. 가장 중요한 건 카메라를 어디에 놓느냐. 현실과 미학의 밸런스? 그런 거 없다. 그저 자리를 잡고 찍는다." **권영기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룸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룰 몰라 단체전 실격패... 메달 걷어찬 한국 유도

세계선수권 혼성단체 동메달 놓쳐
원종훈, 8강전서 경기 직전 기권
'단체전 승패 전 기권, 팀 실격' 해당
대한유도회는 사실 숨기기 급급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혼성 단체전에서 독일에 승리한 뒤 인사하는 한국 선수들. 그러나 독일의 이의제기로 8강전에서 '실격패' 한 것으로 판정이 반복됐다. [연합뉴스]

한국 유도대표팀이 경기 규정을 잘 몰라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 획득 기회를 날려버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한유도회는 숨기기에 급급하다 뒤늦게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 유도대표팀은 지난 2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2024 세계선수권 혼성단체전(남녀 각 3명 출전) 동메달 결정전을 앞두고 실격 통보를 받았다. 혼성단체전은 한국 유도대표팀이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을 노리는 종목이다. 한국은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김민중(남자 100kg 이상급), 허미미(여자 57kg급) 등 남녀부에서 모두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했다.

그런데 한국이 실격패를 당한 건 같은 날 우즈베키스탄과의 대회 8강전에서 3번째 주자였던 원종훈이 남자 90kg 이상급 경기에서 기권했기 때문이다. 원종훈은 매트에 들어서자마자 심판을 향해 두 손으로 'X'를 표시하며 '경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종훈은 허리가 아파서 경기하기엔 어려운 몸 상태였다. 심판은 이를 받아들여 우즈베크 선수의 승리를 선언했다.

국제유도연맹(IJF)은 대회 규정에는 "출전 선수는 단체전 승패가 가려질 때까지 경기에 임해야 한다. 만약 선수가

경기를 거부하면 그 팀은 실격 처리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즉, 선수가 경기를 하지 않고 매트를 떠나는 순간 개인이 아닌 팀의 패배가 된다는 뜻이다. 단 1초라도 경기를 한다면 선수 개인이 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다고 부상을 당하고도 반드시 뛰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부상 선수가 발생해 선수를 내세우지 못하는 체급이 있다면 출전 선수 명단에 해당 체급의 선수 이름을 기재하지 않으면 된다. 이 경우 1패만 떠안고 경기를 계속하면 된다. 그런데 황희태 남자대표팀 감독도 원종훈도 경기에 승패를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인 룰을 몰라서 실

격패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유도회는 정기적으로 대표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만, 정작 승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부 룰에 대해선 다루지 않았다.

한 유도 관계자는 "김민중-허미미 등 챔피언 2명을 보유하고도 규정을 몰라서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끝난 건 국제적 망신이다. 수십 년 만에 금메달이나와 간신히 반등하려는 한국 유도의 인기에 협회가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IJF도 8강전 당시엔 한국이 룰을 어긴 것을 인지하지 못해 경기가

계속 진행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결국 한국은 우즈베크에 0-4로 졌고, 패자전으로 밀렸다. 한국은 패자전에선 독일을 4-1로 완파하고 조지아와의 동메달 결정전에 올랐다. 이때 독일이 IJF에 '8강에서 한국 선수가 기권했기 때문에 규정을 어겼고, 실격패가 마땅하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IJF는 뒤늦게 한국에 '8강전 실격패'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메달 결정전을 준비하던 한국 선수들은 허탈하게 돌아서야 했다. 한 유도 지도자는 "올림픽에서 만약 동메달 결정전을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수년간 훈련 선수들의 땀방울이 물거품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유도회는 숨기고 핑계 대기 바빴다. 대회 기간 내내 발송했던 경기 기록지를 단체전 경기일에는 보내지 않았다. 기록지엔 승리 혹은 패배 사유가 적혀있다.

유도회 선찬종 전무이사는 "황희태 감독은 룰을 숙지하고 있었는데, 선수와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선수가 당황한 나머지 기권한 것인데 이 건 돌발 상황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를 경기에 출전시키니 차라리 해당 체급 출전을 포기했다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 판단ミス였다"고 해명했다. [피주영 기자]

39세에 35골 몰아친 호날두... 4개 리그 돌아가며 득점왕

(사우디 리그)

수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9살 나스르)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세웠다.

알나스르는 28일(한국시간) 사우디 리야드의 알아왈 파크에서 열린 알이티하드와의 2023~24시즌 사우디 프로리그 최종 34라운드에서 2골을 몰아친 호날두의 활약에 힘입어 4-2 승리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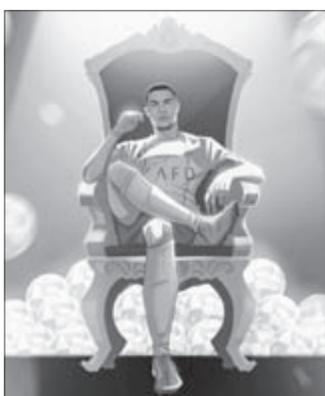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호날두는 전반 48분 선제 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24분 추가 골을 기록했다. 승점 82를 기록한 알나스르는 알힐랄(승점 96)에 이어 리그 2위로 시즌을

EPL·라리가·세리에A 5번 득점왕 사우디 리그서도 최다골 신기록

"난 기록 안 따라... 기록이 날 따라와"

마쳤다.

팀은 우승을 놓쳤지만, 호날두는 빛났다. 이날 2골을 추가한 그는 35호 골(31경기)을 기록하면서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알힐랄·27골)를 8골 차로 제치고 득점왕에 올랐다. 호날두는 사우디 리그 역대 최고 골잡



잉글랜드·스페인·이탈리아에 이어 사우디에서 득점왕에 오른 호날두. [사진 알나스르 SNS]

이로도 기록됐다. 그가 이번 시즌 터뜨린 35골은 사우디 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2018~19시즌 압데라자크 함달라(당시 알나스르)의 34골이다.

2022~23시즌 중반이었던 지난해 1월 알나스르에 입단한 호날두는 16경기만 뛰어도 14골을 넣어 득점 5위를 차지했다. 두 번째 시즌인 올 시즌엔 손쉽게 득점왕에 등극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2007~08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2010~11, 2013~14, 2014~15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2020~21시즌)에서

도 득점왕을 차지했던 호날두는 사우디 리그까지 합쳐 4개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특히 그는 불혹을 앞둔 나이에도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헤트트릭을 4차례나 기록했다. 호날두는 또 정규리그와 컵대회를 통틀어 50경기에 출전해 50골(리그 35골·컵대회 3골·챔피언스리그 6골·아랍클럽 챔피언스컵 6골)을 뽑아냈다.

호날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는 기록을 따르지 않는다. 기록이 나를 따라온다"며 득점왕에 오른 것을 자축했다. [피주영 기자]

20대 초입의 청년들도 부러워 할 만큼 중장년층 여성과 남성들에게 세상사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는 성인전용 상품 LC Plaza, P.O. Box 2831, Garden Grove, CA 92842. 전세계 어디서나 1-213-210-9720 (상담 및 주문), 인터넷 주소: www.yyykkk.com (지불 방법 : 무통장 은행입금 (Bank of America에 직접 입금), 체크 또는 머니오더 송금, 현금 구매, 모든 Credit 카드, Debit 카드, Check 카드)

남성들의 원기회복과 정력 보강에 특효로 알려진 한방 보약재와 천연 생약재 발효 성분으로 구성된 무결점 부작용 천연 비아그라는, 미국 파이저사의 비아그라를 복용했을 때, 케미컬 성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문제가 전혀 없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으로서, 지난 26년간 이어져온 꾸준한 판매실적과, 고객들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100%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70~80대 남성도 20대 초입의 건강한 청년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5캡슐 1병 & 20캡슐 1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 ▶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발기가 잘 안되는 경우
- ▶ 강직도가 충분치 못하거나 일찍 풀리는 경우
- ▶ 비아그라를 먹어도 전혀 효과 없는 분께 특효
- ▶ 내성이 전혀 없는 자연 치유력 증진 효과 보장
- ▶ 여성이 너무 좋아하는 최고 강직도와 지속성

여자가 생각날 때 1캡슐만 복용하면 1시간 경과 후에 여성의 영영이나 가슴을 쳐다만 봐도 아랫도리가 분기명천하는 강력한 남성기 발기력 개선 효과가 1주일 가량 지속되게 해주는 보약. #백인 여성과 일본 여성들의 성생활 동영상 DVD #혼자여도 전혀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게 해주고, 혼자서도 되려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고,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싱글 남녀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자위용품.

#69 전문가가 권장하는 남녀공용 사랑의 윤활유 『우먼센스 오르가즘 젼™』 \$58 (100회여 사용)

끈적임과 자극성 냄새와 색깔 맛이 전혀 없는 무색무취 무자극성 제품이므로 남녀 모두 상대방 모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여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애액과 흡사한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해주고, 남녀 모두에게 미칠 만큼 달달하고 감미로운 황홀한 질 환경을 제공해주며, 삽입하기 전에 서너 방울 바르고 하면 관계가 끝날 때까지 촉촉하게 미끈거리는 아들아들하고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감촉을 제공하는 윤활 작용과 제품을 사용하면 할수록 여성의 성감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주며 평소보다 남성의 성욕이 왕성해지고 발기력이 월등하게 강해지며 여성기의 세균 감염을 방지해주는 위생 작용과 질에서 풍기는 콧냄새까지 청결하게 없애주는 기능성 윤활제 제품입니다.

61 향기로 후각을 자극하여 충동적으로 성욕을 느끼게 해주는 남녀공용 성욕 자극제 향수, 부부와 연인들의 황홀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만들어 주는 남녀공용 성생활 개선제 최음제 향수, 향기를 맡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뜨겁고 황홀한 욕정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달달한 매혹의 향기 최음제 향수 \$45 (90회 사용) 자신의 신체 부위에 일반 향수처럼 1~2차례 뿌리고만 있으면 처음보다 이성이라도 나에게 호감과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가장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G-Spot을 발달시켜주고, 단련시켜주는 천연 옥 질 속에 넣고만 있으면 여성 불감증과 오르가즘 장애 4주 만에 완성, 질 팔약근 수축운동과 여성 요실금 자가치료 \$75

10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끼우고만 있으면 절대로 시들지 않는 남성기 발기력 강화제 0링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밀착시켜 끼우면 빼내기 전에는 절대로 시들지 않는 견고한 강직도 지속 효과와, 터질듯이 부풀어오르는 우람한 사이즈 확대효과, 도출한 링 테두리 부위가 여성생식기를 미칠 만큼 즐겁게 비벼주고 문질러주는 지압 마사지 효과의 0링

1시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가량 지속효과, 100% 천연 성분으로 구성된 자양강장제 개념의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一石九鳥(일석구조)의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남성 생식기능 개선제품



- 5캡슐 1병 & 20캡슐 1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 ① 신장과 간 기능 건강에 100% 확실한 효과 보장
 - ② 늘상 피곤한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한 방에 퇴치
 - ③ 만성 전립선비대증 근본 원인 치료 효과 보장
 - ④ 70~80대 남성들도 규칙적이고 활기찬 성생활
 - ⑤ 점점 양이 줄고 메말라가는 남성 호르몬 보충제
 - ⑥ 막힌 혈관 청소와 고혈압 개선 근본 원인 치료제
 - ⑦ 우람한 남성기 확대 효과와, 견고한 강직도 보장
 - ⑧ 먹기만 하면 커지는 남성기 성장 발육 확대 효과
 - ⑨ 남성 발기부전과 조루증에 확실한 효과 보장

당뇨병 환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게 해주며, 70~80대 남성도 나이와 무관하게 생각 날 때마다 발기력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즉효성 남성 발기제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 1시간 전에 1캡슐만 복용하면 1주일 가량 지속되는 넘치는 정력에 보약효과 만점의 즉효성 남성기 발기제

#12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멧돼지 남성들의 성생활 필수품 오리지널 천연 낙타 속눈썹 링 (세척을 통해 반 영구적으로 사용) 말총처럼 까실까실한 환상적인 감촉과 실크 원단처럼 하늘거리는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촉감이 실신했 만큼 감미롭고 달달하게 여성기 속살을 구석구석 섬세하게 쓸어주는 전설적인 성생활용품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외국인**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5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 마케팅〉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 채용 공고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근무조건: 풀타임
-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걸려 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생활안내 703-281-9660(문자)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1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 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팩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세일즈/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경력자 우대
Benefit(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걸려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 /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고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급휴가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지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 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취업기회)
영주권 스폰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차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엘리컷 시티 Cafe June 에서 샌드위치 사실분
유우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르뱅 베이커리 캐쉬어 구합니다.
(오전/오후/주말)
703-263-2000

워싱턴디씨 IAD 공항 라운지 키친스태프
201-551-8861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 하실분
703-798-7270

베이글샵에서 일하실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스시 & fried chicken / 파티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쉬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수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 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는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선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매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얼터레이션>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타임) / 엘리트시티
410-926-3200

세탁수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연락처: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폴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스테포드 지역 픽업 수선&캐슈어
Tel. 703-628-91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터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 240-246-4477

자동차 메케닉 구함(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 정비소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 처지
703-577-5866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생활안내 703-281-9660(문자)

엘리트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전화문의: 703-678-1749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전화: 703-955-2827 / 540-680-1571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확사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펫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워싱턴 델러스 공항 라운지에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일 하실 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51-8861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 301-537-3800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 301-309-6856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험자 환영
240-393-2773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리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여 노소 환영.
703-424-8596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Mother's Day Week에
가게 안에서 일하실분과 Driver 구합니다.
571-230-7686 Text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연락: 240-903-0777

피아노 주얼에베(11시) 반주봉사할 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덕로드.
202-271-2726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링 주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플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 Serious Inquiries Only * Agent 환영
▶ 703-244-3453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학군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매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마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 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앤드유잇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 703-477-3114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중집. \$1,700
702-622 -8853

콘도 렌트, 센터빌 사거리 불링장 뒷편,
남향집 조용한 지역, 콘방 2개, 화장실 2개,

H마트 및 은행 도보 10분, 단지수영장 5분
거리, 지정 주차 및 방문 차량 주차무한대,
8월 말 입주 가능, \$2,200 (전기세 별도)
703-229-3947

페어팩스 웨그만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 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 703-470-5238

NIST와 Shady Grove 병원 근처
노스포드막 지역 반지하 방1개, 가구,
부엌, 빨래방, 화장실 구비, 직장여성구함
301-520-2916

개인주택 (반지하) 방세 놓음. 출입문 별도
세탁기, 냉장고, 인터넷 Wifi good
703-389-4615

애난데일 도서관서 동쪽으로 0.7마일
콘도방1 렌트, 취사가, 월 \$850(유포),
남*금주*금연자 ■ 571-335-3739

애난데일 싱글홈 2층 방 렌트
취사가, 즉시 입주자
703-732-9153

센터빌 뉴 싱글하우스 자하방 2개, Full Bath
703-508-7743

Fair Oak INOVA 병원 옆 단독주택
지하방 렌트. Rt. 50, 286, H-mart
가까운 곳. 화장실, 세탁기, 냉장고, 인터넷,
남자/금연자 환영.
571-236-0834 (Mrs. Roh)

페어팩스 VA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아주 가까운 곳.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 렌트
방1, 화장실 1, 냉장고, 인터넷/취사가 가능.
출입문 별도. 금연자, 즉시입주.
571-243-6295

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 타운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7분, 조지메이슨 7분
남학생 환영.
571-554-4224 (문자 요망)

애난데일 방 렌트. 전망이 좋고 깨끗합니다.
가구완비, 학생, 직장인 환영 (여자분)
571-232-6052

애넨데일 방 렌트(원룸스타일),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개인사워실, 키친 완비
571-232-6052

아난데일 H-마트 뒤 화장실 딸린 큰방
703-300-8669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별도
금연자, 롯데 10분거리.
702-622-8853

클리프턴 유니온빌 물부근 싱글홈 반지하
워크아웃 출입문 별도
703-732-9153

애난데일 K마트 뒤 싱글 홈 방1개, 주차덕덕
703-965-2343

구독문의: 703-281-9660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시니어(장애인)의 심신이 편안한 생활을 위한 단층주택, 1층 콘도, 텃밭이 있는
곳으로의 이전을 시니어 고객 전문 부동산인이 준비 상담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주차난이 심한 타운하우스 등에서 벗어나 병원, 도서관, 레스토랑, 교통(1-66, 29, 28번 도로)이 원활한 지역에 소재한 생활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올리고 심신의 피로에서 벗어나세요.

물건 거래 사례

- ▶ 1층 주택 (Ground Level)
\$490,000 ~ \$570,000
방3, 화2,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대지 0.3에이커 텃밭 (No HOA)
- ▶ 콘도 (Main Level)
\$300,000 ~ \$370,000
방2, 화2 / 1,000 ~ 1,200 SF, 주차 편리한 곳
저렴한 콘도피 (\$350 내외, Water & Trash 포함)
- ▶ 골프장 커뮤니티 Luxury House / Condo
\$510,000 ~ \$600,000
방3(2), 화2, 1 Garage Gate Community
55+ Senior
- ▶ 근린, 전원생활, 주말농장
\$350,000 ~ \$650,000
도심으로부터 30분 ~ 1시간 근린 생활권,
대지 1에이커 이상

* 기존 주택을 팔고 이주할 때 번거롭게 미리 집을 비우지 않아도 거래 가능합니다.
* 집을 팔거나 사기 전에 집을 손볼 곳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시?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꿈과 열정에 힘입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 주방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팎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 모집 분야: 광고 영업직 0명
일반 사무직 0명
- 기본 MS office 프로그램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dc.thekoreadaily@gmail.com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Barry: Hey Tim have you heard about the Firemen's Ball?
배리: 팀 소방관을 위한 파티 얘기 들었어?
Tim: No. What's the scoop?
탐: 아니. 그건 무슨 얘기야?
Barry: Our volunteer fire department is having a dance to raise money for the Cerebral Palsy Foundation.
배리: 소방서 자원봉사단이 뇌성마비재단 기금모

금을 위해서 댄스파티를 여는 거야.
Tim: When is it going to take place?
탐: 그게 언제지?
Barry: On August 1st at the Hilton Hotel.
배리: 8월1 일 힐튼호텔에서.
Tim: It'll cost a pretty penny, won't it?
탐: 꽤 비싸겠지?
Barry: Not really. It's only thirty bucks a couple.
배리: 그렇지도 않아. 커플이 30달러만 내면 돼.

Tim: Are you going to go?
탐: 자네 갈꺼야?
Barry: I think so.
배리: 그럴까 해.
Tim: I hope you do. I'm going to go.
탐: 자네도 가면 좋겠어. 나도 가니까.

기억할만한 표현
▶ take place: ~가 열리다

what's the scoop? 새로운 뉴스는 없어?

(Barry and Tim are eating lunch~)
(배리와 팀이 점심을 먹으며~)

"The meeting is going to take place at the restaurant."
(회의는 식당에서 열릴 겁니다.)
▶ cost a pretty penny: 제법 비싸다
"The gas at that gas station costs a pretty penny."
(그 주유소는 개솔린 가격이 꽤 비쌉니다.)
▶ thirty bucks a couple: 2인당 30달러
"The movie costs eight bucks per person."
(영화 보려면 한사람당 8달러 듭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가로열쇠

(1)도로 상에서 어느 곳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 주는 표지 (3)젓니가 빠진 뒤에 나는 이. 간니 (5)어른에게 귀여움을 받으려고 일부러 어리고 예쁜 태도를 보이는 일 (7)수륙 양면에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된 정예 부대 (9) 활짝 피어 이글이글한 숯불. 우리는 저녁에 ~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11)손님을 맞이하여 음식 등을 차려 모시거나 시중을 돌 (13)배 속에 알이나 이리가 들지 않아 배가 훌쩍한 생선 (특히 명태) (14)예수의 어머니. 성모 ~ (16) 단맛이 있으며 비위를 돕고 다른 약의 작용을 부드럽게 하므로 모든 처방에 널리 쓰이는 약초 (17)비(碑)를 비바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운 집 (20)사람이 이를 얻으면 온갖 조화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하는 구슬 (23)춘향전에서 이몽룡과 성춘향이 인연을 맺은 곳. 전북 남원에 있죠 (25)선사 시대의 돌무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 (27)차를 세워 두는 곳 (28)가을의 금강산

세로 열쇠

(1)사병 계급 중 가장 아래 계급 (2)주의, 주장, 강령 따위를 간결하게 나타낸 짧은 어구 (3)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4)관중의 흥을 돋우는 여자 응원단원 (6)미터법에 의한 부피의 단위 (7)꿈의 내용을 풀어서 길흉을 판단함 (8)국이나 승승 따위를 담는, 위가 넓적하고 높이가 낮못함. 나는 치통으로 ~의 밤을 지새웠다 (12)환각제로 쓰는 대마의 이삭이나 잎 (13)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는 사내 (15)직원에게 정기 급여와는 별도로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돈을 줌. 보너스 (16)엿기름을 우린 물에 밥알을 넣어 식혀 처럼 삭혀서 끓인 음식. 단술 (18)무대의 앞쪽 아래에 장치하여 배우를 비추는 광선. 사회적 관심이나 흥미 (19)강이나 내에서 배가 건너다니는 곳 (21)옷과 음식과 집.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22)일할 사람을 구함 (24)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1950m) (25)어떤 물건이 특히 많이 나가나 있는 곳. 사과의 ~ (26)갑자기 세계 부는바람

스도쿠

	6	4		2		5	3	
	7	9	1		3	2	6	
		3		6		7		
	2		8		5		1	
		6		1		9		
	9	1	5		4	3	2	
	4	5		8		1	7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5	4	9	1	6	2	8	3	7
6	7	1	8	3	5	4	9	2
7	9	8	6	1	7	5	2	4
8	2	4	3	7	5	9	6	1
3	5	6	1	2	7	9	8	4
4	8	5	9	3	6	7	2	1
6	1	3	5	4	9	8	7	2
7	8	2	6	4	9	1	5	3
9	3	7	8	5	2	6	4	1
1	6	8	7	9	4	3	2	5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month year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애틀랜타 뉴욕

매매 매매 구인

성업중인 우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 3만5천
 년매 8만 (310)996-8925
 수영장 청소권 매매
 팔로스버디스/토렌스
 (818)926-2095

한식당 매매
 한국 BBQ 식당
 테네시 주 위치
 매매가 69만불
 텍스트로 먼저 연락 요망
 (949)422-8332

CL
 Management Manager
 in Palisades Park, NJ:
 Send resume to
 Coway USA, Inc.
 4221 Wilshire Blvd, STE 210
 Los Angeles, CA 90010
 wages from \$60,000 to
 \$70,000 per year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드신분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속성 · 전립선 비대증 · 한 번에 해결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바로고 하면 끝내주는, 남녀공용 성욕과
 성감 개선제, 유타유 젤 #10 남성발기 O 링
 #12 천연 그대로, 오리지널 닥타 속눈썹 링
 1-213-210-9720 (제품 상담 및 주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한인 업소록 + 뉴스 통합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Up to 40% 할인
천공상상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홀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들과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국 동시게재??!!**
 The JoongAng Chicago, New York, Washington DC, Atlanta, Los Angeles
미주 전지역의 광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2024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여름학기 개강 6월 18일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MD, DC, VA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